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VOL. 36

GYEONGNAM MECENAT



경남메세나협회
GYEONGNAM MECENAT ASSOCIATION

경남메세나협회는 민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도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열고 있다. 사진은 2023년 9월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발레리나 김주원과 발레리노 김희현이 한 여성의 사랑과 이별을 음악과 춤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적인 프리마돈나인 김주원은 탱고와 발레의 이질적인 움직임을 조화롭게 승화시키며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발행인 예경탁
발행일 2024. 1. 31.
발행처 경남메세나협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055. 285. 5611
편집인 석수근
진행 손수나
기획·디자인 디자인바오



GYEONGNAM MECENAT

CONTENTS

스페셜 인터뷰	04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스페셜 테마	08	‘가야고분군’ 고대 동아시아 가야문명의 독보적인 증거
아름다운 동행	12	근로자의, 근로자를 위한, 환상의 하모니 – 창원근로자합창단 ASSA × (주)월템
	16	창원을 사랑하는 기업과 극단, 가족이 되다 – 신화철강 × 극단 나비
메세나 인터뷰	20	독심과 신뢰로 공간을 디자인하다 – 이수디엔씨 권오성 대표
지금 경남예술	22	경남 최초의 대학생 예술인 모임 –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
	26	남해안 시대의 핵심 키워드, 지역 문화예술+관광 –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포토포엠	28	돌담 담론
문화공간	30	마음을 빛는 시간, 여유를 굶는 공간 – 산청요
메세나 소식	32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34	2023 경남메세나대회
	40	회원사 문화서비스
	41	경남메세나 문화나눔사업
	42	너 아트프렌즈
	4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재인증
	44	전국 메세나 단체장 간담회
	45	2024 경남예술지원 매칭펀드
인조이 컬처	46	프랜시스 베이컨, 닳지 않은 듯 닳게 그리기
	48	Player's Playlist

M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디딤돌 되어

예술활동을 위한 길 열어줄 것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생각은 명료했고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5선 국회의원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라는 화려한 이력 때문이 아니라, 예술인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함께 옳은 방향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정치인 출신이 예술인들의 의사결정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을 ‘걸림돌’이라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었다. 2024년 새로운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던 어느 겨울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정병국 위원장과 마주앉았다.

Q1.

2023년 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무척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다. 위원장으로서 지난 1년간 어떤 일을 추진했는지 궁금하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바라봤을 때는 몰랐던 부분을 여기 와서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다. 한편으로는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만들었던 제도가 지금까지 지속되는 걸 보면서,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그래서 위원장을 맡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의 정책 고객인 ‘예술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그래서 총 14차에 걸쳐서 예술인과 만남을 추진했다. 예술인과 의견을 나누고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을 거치면서 2024년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 방향 및 심사 제도 등 대폭적인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Q2.

예술인의 의견이 반영됐다면 많은 예술인에게 환영받을 것 같은데, 사업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나.

우선, 흩어져 있던 사업을 통합해서 프로젝트 수를 기존 44개에서 17개로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일각에서는 ‘과거로 회귀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이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예술인의 바람을 반영한 부분이었다. 사실 사업이 44개로 쪼개져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 는 사업이 많은 것 같아도 예술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다. 또 각 사업에 따른 조건을 맞추다 보면 원하는 원하지 않는 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결국 예술인 스스로 창작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17개로 통합하면 큰 틀에서 조건이 맞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좋은 예술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용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선정되면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할 수도 있어서, 예술인들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또 완료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덧붙여 국내와 국외로 나눠져 있던 사업도 국내외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세계적인 예술인과 함께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눠져 있던 사업을 통합하게 되면서 관리비 및 운영비, 심사비 등 예술인을 위한 지원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던 비용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결국엔 예술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Q3. **지원사업 부분에서 국내외 구분을 없앴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하나.**

Q4.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술가를 위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고 민간예술 후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Q5.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 예술나무 후원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들었다. 예술나무 후원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Q6.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지역 간 문화적 격차가 많은 것 같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 지난해 5월에 IFACCA(국제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 지도자 회의를 비롯해 문화예술세계총회, 대만에서 진행된 한국 문학의 날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했다. 거기서 만난 세계인들이 입을 모아 대한민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칭송하고 있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예전에는 외국 바이어와 미팅을 하면 먼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미 대한민국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예술가들도 세계와 경쟁하고 교류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예전에는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후원단체만 있었지만 지금은 지역마다 지역 단위의 메세나 협회도 생겨나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리고 지역마다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각 지역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에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야외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페스티벌을 통해 참여한 관객들의 기부도 받고 민간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사실 정부 예산만 가지고 예술가를 지원할 때는 예산의 편성 기준에 맞춰야 되고 정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매개 단체 역할을 해서 개인이나 단체, 기업 등에서 후원을 받아서 예술인을 돕는 활동이 예술나무 후원 사업이다. 경남메세나협회에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를 연결해 주는 매개 단체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예술나무 운동은 예술을 우리가 함께 키워야 할 나무로 형상화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며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표적인 예술후원 브랜드다. 우리가 예술나무 운동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홍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페스티벌을 열고 지난 10년간 모은 정기 회원에 버금가는 수의 인원을 추가로 정기회원으로 유입시켰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예술나무 운동을 알려서, 예술인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탬 예정이다.

수도권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는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문화적 환경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 앞서 ‘팔 길이 원치’에 대해서 말했지만,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우수한 예술인을 모셔서라도 데리고 가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문화예술이 있다면 문화적 격차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Q7. **요즘 사회적으로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문화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문화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Q8.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 분야가 참 어렵다. 예술인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Q9. **마지막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경남메세나 회원 기업인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 요인이 참 많다. 1등 지향의 교육만 하다 보니 모두가 경쟁 상대이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 중에서 예체능 분야만이 유일하게 공정성과 공감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교육을 배제하고 있으니 공정성과 공감성 키우기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남들과 싸워서 이기는 건 잘하는데, 상대방을 인정하고 어우러지는 건 잘 못한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다.

하지만 문화는 어떤가. 예술과 창작품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같으면 창작품이 될 수 없어서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틀린 건 없다. 다르다고 인정하고 들어가면 결국 거기에서 공감력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르지만 괜찮다’는 공감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문화적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술 하기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십분 공감한다. 전 세계 순수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어렵다. 그래도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오고 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예술활동을 하면 좋겠다. 앞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예술인 여러분이 더 좋은 조건에서 창작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지원하도록 하겠다.

메세나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 기업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업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다. 최근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 지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기업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면 자사 상품에 문화 지수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 문화 지수가 높은 기업의 상품 가치도 무척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ESG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술 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이 ESG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후원도 좋지만 문화예술 후원을 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니 지금처럼 앞으로도 문화예술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펼쳐 오신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요즘 세상에 필요한 것은
‘다르지만 괜찮다’는 공감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 고대 동아시아 가야문명의 독보적인 증거



하승철

경남연구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지원단 조사연구실장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으며 2001년부터 경남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경남의 문화유산 조사연구에 매진하였다. 한국고고학회, 가야사학회,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추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현재에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이란 유네스코(UNESCO)에서 1972년 채택한『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유산을 말한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되며 '가야고분군'은 문화유산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가야고분군(Gaya Tumuli)'이 우리나라 16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래, 자연유산 2건, 문화유산 14건 등 모두 1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되었다. 이번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한국의 '가야고분군'을 포함하여 문화유산 33건, 자연유산 9건 등 모두 42건의 유산이 새로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2023년 12월 기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933건, 자연유산 227건, 복합유산 39건으로 총 1,199건이다.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2011년부터 시작

가야는 우수한 철기문화와 발달된 토기생산 기술, 광범위한 교역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고대문화권 형성에 기여했지만 가야문화의 가치는 세계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가야문화권에 속한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에서는 2011년부터 가야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야문화를 대표하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2013년 12월에 김해·함안·고령 3곳의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고, 2018년에는 4곳(합천·고성·창녕·남원)의 고분군이 추가되어 신청유산이 7개로 확대되었다. 2020년 9월에는 국내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1월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2021년 9~10월에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에서 가야고분군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 2월에는 자문기구(ICOMOS)에서 요청한 보충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고, 2023년 9월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침내 등재가 확정되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의 '가야고분군'은 현재가

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파악된 가야의 7개 정치세력이 조성한 지배층 고분군이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합천 옥전고분군은 합천 쌍책지역 가야 정치체,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운봉고원 가야 정치체,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비화가야의 지배층 고분군이다.

여러 정치세력으로 이루어진 가야

가야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구려·백제·신라와 함께 우리나라 고대문명의 한 축을 형성했다. 가야의 영역은 현재의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고령군, 호남 동부지역이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일원도 한때(5세기 전반까지) 가야에 속했다.

가야는 여러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연맹의 형태를 보이는데, 한중일 사서에는 가야를 구성했던 여러 정치체의 국명이 기록되어 있다. 1145년에 편찬된『삼국사기』에서는 금관국·아라국·골포국·칠포국·고사포국의 국명이 확인되고, 1281년에 편찬된『삼국유사』에는 아라가야·대가야·소가야·비화가야·성산가야·고령가야와 함께 보라국·고자국·사물국 국명이 기록되어 있다.

가야사는 대체로 4세기 또는 5세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전기에는 남해안을 통해 전해진 선진문화의 영향으로 경남의 김해·창원·함안·고성·사천과 부산의 동래에서 가야 세력이 성장하였고, 후기에는 경북 고령, 경남 거창·함양·합천·산청, 낙동강 동쪽의 경남 창녕, 호남 동부지역의 전북 장수·남원, 전남 순천·여수·광양지역으로 가야 문화권이 확대된다. 가야 전기에는 금관가야·아라가야가 강성하였고, 후기에는 대가야·소가야·비화가야·다라국 등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 1)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9.17)
- 2)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발표 현장(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9.17)
- 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인증서

가야고분군, 가야연맹을 실증하는 독보적인 증거

가야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한 주변의 고구려·백제·신라와 달리 다수의 정치세력이 공존하였다. 가야 각국은 해안가나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자율성이 강했다. 그러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원의 편중과 폐쇄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하여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면서 발전하였다. 또한 가야 각국은 주변국과의 자율적인 교섭과 교류를 통해 다원적인 관계를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고대 동아시아에는 강력한 정치 권력이 등장하여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며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형성해 나갔지만, 가야는 다수의 정치세력이 병존하면서 연맹 또는 연합이라는 정치체계를 유지하였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한반도 남부의 해안과 내륙의 독립된 분지에 위치하는 가야 7개 정치체의 최상위 지배층 고분군이다. 이는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가야연맹을 구성했던 대등한 수준의 7개 정치체의 존재를 보여준다. 가야 각 정치체는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와 교류할 수 있었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자율성을 누리면서도 상호 문화적인 특징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다. 각 정치체 중심지의 가시성이 뛰어난 구릉지에 지속적으로 군집하여 조성되는 고분군의 특성은 가야연맹을 이루었던 정치체 간의 동질성을 표현한다. 또한 하나의 구릉지에 대형 고분을 높은 곳에, 중소형 고분을 보다 낮은 곳에 배치하거나, 대형 고분을 중소형 고분이 둘러싸는 방식은 각 정치체 내 계층 분화의 양상을 반영한다.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

가야의 고분에는 피장자와 함께 의례용 토기, 철제갑옷과 무기, 농공구, 위세품, 교역품 등 다양하고 많은 물품이 매납된다. 이는 무덤 주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거나 망자의 사후 세계에서의 안락을 기원하기 위해서 매장한 것이다. 가야 최상위 지배층의 무덤에는 당시 최고 수준의 물품이 다량 부장되었다. 가야 고분의 부장품은 단순히 물품에 그치지 않고, 당시 가야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며 물질문화의 도달 수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
사람, 물건, 사상이
자유롭게 흘렀던 열린 세계였다.*

4) 고령 지산동고분군 발굴전경 5) 다양한 형상을 본 떠 만든 가야토기(함안 말이산고분군 45호분) 6) 대가야 금동관(고령 지산동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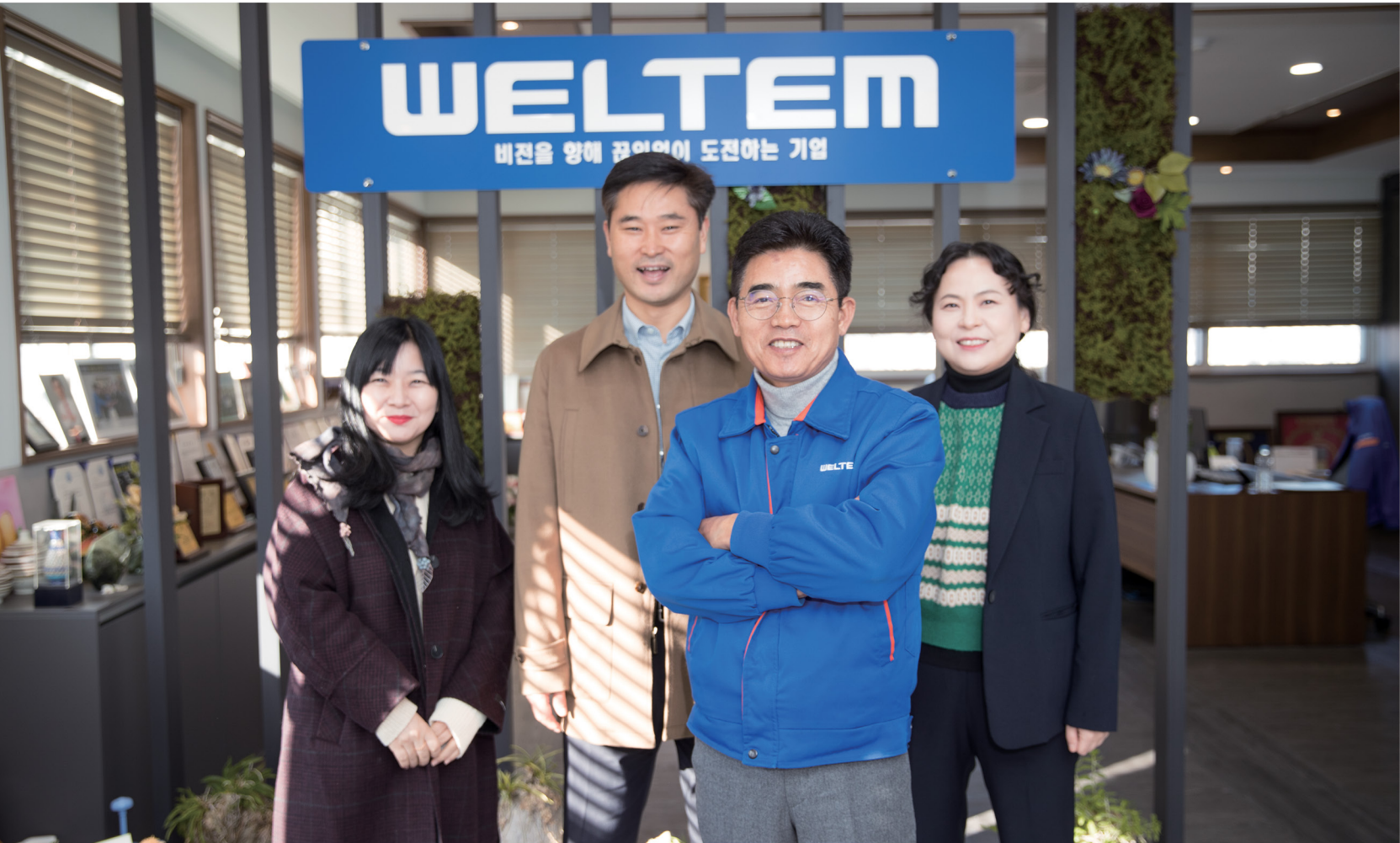
자율과 공존을 추구하며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여했던 가야

세계유산에 등재된 7개의 고분군은 동시기 주변에 존재했던 다른 정치체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가야 문명의 존재를 증명한다. 역사학자들은 이 문명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맹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고대 동아시아 사회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 사람, 물건, 사상이 자유롭게 흘렀던 열린 세계였다. 선진적인 토목건축기술과 수공업(토기·청동기·철기 등)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었고, 한자, 유교·불교, 율령 등이 퍼져나가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문명의 가교였다. 가야는 해

로와 수로, 육로가 연계된 체계적인 교역망을 통해 동아시아 세계를 이었고, 동아시아 문명을 융성하게 하였다. 금관가야와 소가야는 남해안 해로를 통해 중국, 백제, 일본(왜)을 연결하였다. 아라가야·다라국·비화가야는 남해안과 남강·낙동강을 통해 해양과 한반도 내륙의 여러 집단을 연결하였고, 운봉고원 가야정치는 육로를 통해 중국과 백제, 가야를 이었다. 대가야는 가야 북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과 금광의 개발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낙동강과 섬진강 수로를 활용하여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가야는 비록 작고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자율과 공존의 질서 속에서 완충지대, 교역의 장으로서 동아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다. 자율과 공존의 정치체, 동아시아 세계로 열려 있었던 가야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 개방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가야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 개방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의, 근로자를 위한, 환상의 하모니

창원근로자합창단 ASSA × (주)웰템

지난 12월 진해문화센터공연장에서 세상 가장 신나고 아름다운 합창무대가 펼쳐졌다. 창원근로자합창단 ASSA(아싸)의 열세 번째 정기공연. 일하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가며 연습해온 45여명의 단원들 면면은 기쁨과 뿌듯함,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반짝였다. 한때 존립 위기까지 갔던 이들에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까? 이 감격의 순간이 있기까지는 결정적인 한 장면을 기꺼이 장식해준 (주)웰템의 박정우 대표가 있었다. 창원근로자합창단 ASSA와 (주)웰템의 동행 스토리를 따라가보자.

창원근로자합창단 ASSA

‘근성’ 넘치는 열정의 합창단

■
워라벨,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큰 화두가 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좋은 삶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물론 맞는 말이다. 누구나 공감하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도 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잘 안다. 그래서 이들이 참 대단해 보인다. 이 지역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만든 창원근로자문화기획단, 합창단을 위주로 활동하는 근로자들의 문화단체이다. 2011년부터 시작해, 팬데믹 속에서도 온라인 영상으로 모여 실시간으로 매주 연습을 이어갔고,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그 해에도 빠지지 않고 정기연주회를 만들어 냈다. 그야말로 ‘근성’ 있는, ‘근성’ 넘치는 합창단이다. 어떻게든 이 활동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그때의 노력들은 이제 다른 단체에서 부러워하며 비법을 물어올 정도의 자부심이 되었다.

ASSA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란 뜻이다. 이름도 단원들이 공모해 투표로 정했다. 광민경 간사는 “요즘은 아웃사이더를 ‘아싸’라고 하던데, 노래에는 언제나 진심이고 열정에 있어서는 최고의 ‘인싸(인사이더의 준말,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ASSA가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요.”라며 근로자들의 열정 또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고 말한다. 그중에서도 최고의 열혈 ASSA맨은 최창열 단원장이 아닐까 싶다. 근로자 합창단을 모집한 첫날 오디션 때부터 지금까지 꼭 함께하고 있다는 최창열 단원장. 1주일에 한번 하는 정기 연습은 물론 공연준비를 위한 비정기적인 연습에도 꼬박꼬박 출석하고 있다. “저도 직장인이면서 가장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하고 싶은 위기가 꾸준히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어느덧 지금 14년 차예요. 이제 한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까지 오르고 올해 보직도 받았는데, 사실 힘든 순간도 많았죠. 그래도 정말 힘들 때도 합창단은 꼭 왔었어요. 일이 밀려서 도저히 7시

반~8시에 하는 합창 연습에 못가겠다 싶은데도, 일단 가서 합창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서 새벽 한 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어요”. 일과 합창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낸 그의 비결 또한 열정과 근성이 아니었을까. 50여명 단원들 모두와 이들을 이끄는 라승균 지휘자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실이 무대에서 빛을 발한다.

(주)웰템… 냉난방기·공조기 제조, 수출

근로자를 위한, 작업현장 필수품

■
2019년부터 창원근로자합창단과 인연을 맺고 있는 (주)웰템은,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동식 에어컨과 히터, 제습기,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이다. 지난해 12월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국내 산업현장은 물론 해외 40개 나라에 수출하며 해마다 20~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작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동식 에어컨이 주력 상품이다. 근로자를 위한 제품, 근로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셈이다. (주)웰템 박정우 대표는, 마산 양덕동의 16.5㎡(5평)쯤 되는 사무실에서 판매 유통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때 나이가 스물 일곱. 열정 넘치는 청년 사업가는 부도의 위기도 겪고 다양한 사업적 경험을 넓혀가면서, 소위 지방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팔아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깼다. 그렇게 35년여 동안 근성 있고 탄탄한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 맺어진 인연

■
근로자를 위한 작업환경에 늘 관심을 두는 기업인이란 그럴까. 여러 문화예술체육분야에 후원하며 사회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이들 창원근로자합창단에 대한 후원은 특별하면서도 그 이유가 단순명쾌하다. 바로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하는 합창단이라는 말에 두말없이 메세나 매칭펀드 파트너로 나섰

다. “우리 회사에도 직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직원들 같은 근로자가 하는 합창단이라는 데 어떻게 안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박정우 대표. 그럼에도 2019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내가 후원자네 하고 앞에 나선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마치 창원근로자합창단 ASSA에게 (주)웰템의 박정우 대표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존재였다. 그 인연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창원근로자문화기획단은 운영의 위기를 맞았다. 그간 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받아오던 지원이 끊겼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근로자들이 순수하게 자신들의 취미와 여가를 위해 모여 노래하는 합창단이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 없이 순수 단원들의 회비만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연습이야 단원들끼리 모여서 한다 치더라도, 무대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단체를 운영해 나갈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휘자님과 반주자님이 교통비 정도만 받고 지도하시고 반주해 주셨어요. 그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지휘자님은 자신은 괜찮으니 반주자 사례비를 더 챙겨드리라 하시고, 반주자님도 ‘나도 단원이나 다름없다’면서 최소한의 사례비만 받고 반주해 주셨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하는 광민경 간사. “ASSA가 또 하나의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느꼈죠.”라고 김미진 감사가 덧붙

였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어가며 그해 가을, 마산 종합운동장 한켠의 공간을 빌려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그날 우연히 이들의 공연을 본 (주)웰템 박정우 대표는 ASSA의 열정에 반해 후원자가 되기로 했다. “우리 됐어! 앞으로 계속 공연할 수 있게 됐어!!”라고 단원들에게 후원 소식을 전했다는 김미진 감사는 그날의 여운이 여전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부도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 인간관계가 중요하죠.”
“죽기 전에 베풀고, 빛 없이 가야죠.”

■
많은 후원을 하면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주)웰템 박정우 대표는 이들과의 인연이 헛수로 벌써 6년째, 후원자는 말 그대로 뒤에서 조용히 돕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해왔던 터라 이렇게 단원들과 함께 마주한 것도 거의 6년만이다. 이들의 지난 역사와 속사정을 직접 들은 박정우 대표, “우리 회사에도 노래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거기 가보라고 해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후원할 테니 걱정 말고 노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격려하는 모습이 따뜻하다. 덕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창원근로자합창단은 스무 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50명 내외의 단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과의 좋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주)웰템 박정우 대표는 창원근로자합창단이 겪었던 과거의 그 위기와 불안감, 그 순간을 넘겼을 때의 환희와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사람과의 좋은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던 90년대 중반 무렵, 받아놓은 어음 1억원 때문에 1차 부도가 났었다. 이리저리 막아봤지만 900만원이 부족했던 상황, 꼼짝없이 회사를 모두 잃을 위기였는데, 거래처 직원이 당시 직장인 신분으로 900만원 대출을 받아 도와주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나를 알고 믿어주신 거죠. 당신이 보기에 정말 이것만 잘 넘기면 될 것 같다 판단하셨고 그분 덕분에 진짜 살아났죠. 일생일대의 은인이죠. 은인...”라는 박정우 대표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의 부도 어음을 간직하며 삶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늘 새기며 살고 있다는 박정우 대표. “사업한 지 34년하고 한 6개월 되어 가는데,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하루하루 돈 걱정, 물건 파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35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남들과 같이 살아야겠다

싶어요. 제가 올해 62세입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도움받았던 걸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려주는 쪽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내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박정우 대표, “도움은 주고 받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속에서, 모든 인간 관계가 알게 모르게 물려가는 거니까요. 내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또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잘 살아야 한다. 베풀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빛 없이 가야죠.”라며 진한 감동의 미소를 전한다. 예술하는 분들을 후원하는 건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하는 (주)웰템 박정우 대표는 “예술하는 분들은 감성이 남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게 후원하고 지켜보는 저희들에겐 또다른 감동을 주고 감흥을 줍니다. 특히... 직장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연습해서 공연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후원하는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도 사랑하고 바깥에 있는 직원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분 좋은 농담을 전한다.

음치도 O.K... 열정의 하모니를 ASSA

■
창원근로자합창단 ASSA의 가장 큰 특징은, 음치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다. 실제로 음치 수준으로 노래를 잘 못하는 단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어떤 불협화음 없이 멋진 합창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ASSA만의 매력, 그 저력과 비법은 무엇일까. 최창열 단원장은 지휘자의 훌륭한 지도력에 있다 하고, 김미진 감사는 내 실력으로 될까 걱정하면서도 어떻게든 노력해서 맞춰오는 단원들의 열정에 있다 하고, 광민경 간사는 직접 의상 소품까지 모두 기꺼이 준비하면서 너무나 즐겁게 함께하는 그 마음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 더,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기로 한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마음을 가진 (주)웰템 박정우 대표의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동행이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앞으로 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낼 이들의 동행을 응원한다, 아싸!



신화철강
× 극단 나비

10년, 요즘의 속도라면 강산이 수십 번은 바뀌었을 시간이다. 그러니 사람의 관계야 말해 뭐하겠는가.

10년을 꾸준히 이어온 인연이란, 귀할 수밖에 없다. 창원 산단을 대표하는 철강종합백화점 신화철강과 창원을 대표하는 극단 나비가 그 귀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신화철강과 극단 나비의 10년 동행 이야기를 들어보자.



창원을 사랑하는
기업과
창원을 사랑하는
극단,

家族
가족이 되다

인연의 시작

신화철강과 극단 나비의 인연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로 가입한 신화철강은 지역에서 어렵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예술단체를 돕고자 후원할 단체를 찾고 있었는데, 인연의 손길이 ‘극단 나비’로 날아들었던 것이다. 한번도 결연 기업이 없었던 극단 나비로서는 참 고마운 제안이었다. 극단 나비의 김동원 대표는 “제가 그냥 자체적으로 창작활동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쪽으로는 영 소질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뜻 연락을 먼저 주셔서 상당히 영광이었어요. 감사했죠.”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많은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 왜 연극이었을까? 신화철강 정현숙 대표는 1980년대 자신이 직장 생활하던



때를 떠올렸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 대표는 6년 6개월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했다. 그때는 영화도 마음껏 보기 힘들었고 문화예술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어떻게 접해야 할지 몰랐다고.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시절 자신이 경험한 애로사항을 훗날 자신이 회사 사장이 되면 직원들을 위해 꼭 길을 열어주겠다고 다짐했었다. “직장생활 하면 참 힘들잖아요. 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 그게 또 활력소가 되거든요.” 문화예술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정현숙 대표는 “예술창작 활동을 하는 곳 중에서 어려운 곳이 어딘지 찾았죠. 작은 힘이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찾다가 연극 단체와 결연을 맺게 됐습니다.”라며 직원들 입장에서 관람할 기회가 흔치 않은 ‘연극’을 선택했다. 해마다 회사 송년 모임을 결연단체의 연극을 보면서 해왔다는 신화철강. 2023년에도 극단 나비의 작품 ‘당신의 재판’을 단체 관람하고 배우들과 식사도 함께하면서 마무리했다. 정 대표는 처음엔 연극 보는 것 자체를 낯설어했던 직원들도 이제 연극의 묘미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다고. “제가 몇 년 동안은 반 강제로 끌고 다녔어요. 전략을 좀 짰죠. 현수막 만들어서 단체 관람하고 단체 사진을 꼭 마지막에 찍어요. 일종의 출석 체크죠. (^)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며들더라고요.” 직원들 사이에 스며든 연극은 어느새 부모님, 가족, 아내, 친구들까지 함께 보고 갈 정도로 좋아한다. 직원들 뿐 아니라 아내들과도 직접 연극 관람 후기를 메시지로 나눌 정도로 소통이 많다고. 정 대표에게 연극을 비롯한 문화예술공연은 직원들과의 소통 통로와 같다.

극단 나비의 배우들 역시 꾸준히 극장을 찾아와 응원해주는 팬이 생겨서 좋다. 극단 나비의 김동원 대표는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그런 만큼 또 만드는 입장에선

즐겁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에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요. 저는 관객으로 가서 보고 열띤 박수로 응원하면 되고...”라고 겸손하게 응하는 정현숙 대표다. 어느새 서로에게 스며들며 멋진 동반자가 된 신화철강과 극단 나비. “10년을 동행하다 보니 저도 그렇고 단원들도 그렇고, 단순히 주고받는 개념이 아니라 가족 같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라는 김동원 대표의 말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다.

창원을 사랑하는 기업가

지식산업센터 오픈, 창원산단의 랜드마크로

신화철강 정현숙 대표는 물 맑고 공기 좋은 산청에서 태어나 자랐다. 1985년 처음 창원에 내려와 직장생활을 하는데, 차는 없는데 쪽쪽 도로가 뻗어 있는 창원산단의 초창기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강렬했다. 이 허허벌판 같은 공간을 하나씩 채워가는 것도 의미있겠다 생각했다고.

6년 6개월의 직장생활을 과감히 접고 1991년 창업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부산에서의 여러 아르바이트 경험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낮선 곳에서 낯선 문화를 느끼면서 그속에서 꿈을 꿔던 거죠.” 그리고 모친의 응원과 실질적인 보살핌은 큰 힘이였다. 34년 전, 여성으로 창업을 한다는 것, 그것도 철강 분야에 여성이 뛰어들다는 것 자체가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다. 창업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신화철강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90~99% 이상 맞춤으로 만들어 판매한다. 제조뿐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맞게 절단, 가공 공정까지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한 제품을 만드는 데 5개 파트가 필요하다면 신화철강을 통해 3.5개 파트는 해결이 되는 거죠. ‘철강 종합 백화점’. 대한민국에 비슷한 철강회사가 여럿 있지만 자부하건대 가장 다양한 제품, 다양한 공정을 갖고 있다는 게 저희의 특장점입니다.”라는 정현숙 대표의 목소리에 자긍심이 넘친다.

창원을 사랑하고 창원 산단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정현숙 대표는, 또 다른 문화에 대한 도전을 시작했다. 창원 산단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2016년 1차를 완공했고, 지금은 4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23층의 2차 지식산업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창원시와 창원산단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 하나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정 대표,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업무 공간을 아니다. 산업 관련 노하우가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공간공간마다 문화가 흐르면서 주변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또 창원시민들이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창원에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애정하는 창원시와 창원산단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창원산단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깊은 정현숙 대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창원시와 창원산단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간이 없었으면 현재 내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후배 기업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선배가 있었다면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 했던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그리고 선배들이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한다.

창원을 사랑하는 연극인

무던함으로 채워온 지역무대

극단 나비의 김동원 대표 역시 창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마산에서 태어나 연극학과로 진학한 김 대표는, 서울에서 연극 생활을 하던 시간에도 ‘고향으로 내려와 연극을 하겠다’는 게 꿈이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1996년 지역에서 극단을 창단했다. 초창기에는 ‘가야레퍼토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2004년 극장을 만들면서 변화를 주기 위해 극단 이름을 ‘나비’로 바꾸게 됐다고. 어느 명절날 시골집에서

66

낮선 곳에서 낯선
문화를 느끼면서
그속에서 꿈을
꿨던 거죠.



호랑나비를 보게 됐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중에도 날아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자유롭게 예뻐보여서 극단의 새 이름을 ‘나비’라 지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에는 더더욱 지역에서 극단을 창단하고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터.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제가 좀 무뎅니다.”라는 말을 먼저 내뱉는다. “젊을 땐 그저 연극한다는 정신만 살아 있어서 공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그런 힘든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또 워낙 무뎅어요, 제가... 어떻게든 꾸려서 연극 만드는 것만 해오다 보니까...” 물론 극장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독촉 전화가 오면 순간 순간 힘들었다고. 7~8년 사이에 5번 정도 공간을 옮겨다닐 정도로 녹록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또한 순간이었다고. “옛날보다야 지금 운택해졌죠. 지원사업도 많아지고 지차체마다 사업들도 활발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운영의 모델이 생겨서 환경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저

희 연극인들만 알 수 있는 문화, 배우 수급, 질, 복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 열악합니다. 그래도 하고자 하는 걸 해나가는 거죠.”라고 말하는 김동원 대표,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을 어차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똑같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더 움직여서 연극분야를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고집스럽고 단호한 면이 있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지역 연극인으로서의 깊은 고민의 시간들이 스쳐 느껴진다.

그렇게 자신만의 무대를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는 극단 나비,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작품으로 1년 내내 무대를 채워가는 게 소박하고도 정직한 계획이고 꿈이다. 2022년에는 ‘원 맨 아트쇼’라는 특별한 공연 예술축제를 기획해 만들기도 했다. 많은 공연단체들



이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요즘은, 때문에 1~2월이 공연 비수기이다. 그 기간에 자체적으로 공연을 해보자. 연극은 물론 음악, 무용 등 모든 문화공연이 다 있는 행사를 만든 것이다. 23년에 이어 올해도 3회째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터부시 하는 걸 깨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지원사업이 아니라 본인의 무대를 이 축제기간에 만들어서 해라, 이런 기획의도였죠. 그동안엔 극단의 쌈짓돈 모아둔 걸로 투자해서 만들어왔는데, 이걸 창원시 전체 행사로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묵묵하게 연극 무대를 지켜온 극단 나비의 김동원 대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 그 날갯짓이 창원의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된다. 그의 고집과 단호함, 또 그만의 무던 현실 감각이랄까, 어쩌면 그만의 무덤덤함이 이곳 창원의 연극 문화를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창원시와 창원산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신화철강의 지식산업센터 곳곳은 문화예술로 채워질 예정이다. 장르와 틀을 깬 여러 문화기획이 벌써부터 정현숙 대표의 머릿 속에 가득하다. 그 계획의 일부에는 자연스럽게 극단 나비와의 동행도 들어간다. 김동원 대표는 극단 나비의 노하우로 함께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먼저 마음을 읽는다. 무뚝뚝하지만 무심한 듯 하지만 늘 옆을 지켜주며 응원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만으로도 우린 큰 힘을 얻는다. 그래서 신화철강과 극단 나비의 동행은 더 아름답다.

3~8초 사이에 결정된다는 첫인상,
그렇다면 사람의 무엇이 첫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일까? 여기 좀 더 남다른 방식으로
특별한 첫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
30년 가까이 지역 실내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실력'으로 '신뢰'라는
첫인상을 남기며 '자부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수디엔씨 권오성 대표, 새롭게 메세나
가족이 된 그를 만났다.



이수디엔씨 권오성

좋은 인연 덕분에 '복이 왔다'

보통 체형은 아닌 듯한 꽤 듬직한 외모, 무심한 듯 무뚝뚝한 표정이 반가운 이를 만나니 순간 미소와 웃음으로 가득 찬다. 국민 판다 '푸바오'가 커지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게 사람 좋은 미소다. “운동도 했었고 이미지가 강해서, 안 웃고 현장에 가면 다들 무섭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저랑 같이 일해본 분들은 아시죠.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저에 대한 신뢰도 쌓이고 일에 대한 성취감도 쌓이고... 인상 쓴다고 안 될 일이 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결국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모두 사람이 하는 일. 그래서 권오성 대표는 사람과의 인연을 귀하게 여긴다. 좋은 일이 생기면 ‘복이 왔다’고 표현하며 좋은 인연 덕분이라고 말한다.

무사고, 공기 내 마무리, 깔끔한 정리, 나름의 철칙으로 신뢰 쌓아

사람 좋은 웃음을 보이다가도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엄격하게 임하는 권오성 대표는, 실력은 기본, 공기 내 안전하게 마무리, 깔끔한 정리, 인건비와 자재비는 투명하게, 최선을 다하는 A/S까지 나름의 철칙으로 꽤 내실 있게 사업을 일구어 가고 있다. 사업에 뛰어난 건 20대 중반, 1996년이였다. 군 복무 시절 어느 인테리어 철거 현장에서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제대 후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배운 후 이내 현장에서 ‘초보 건축 인테리어 기사’로 일을 시작한 권 대표, 하지만 당시 인테리어 건축 현장은 정말 기대 이하였다. 제대로 공사비가 쓰이지 않고 일꾼들 임금은 물론 돈 때 먹는 일도 다반사였다.



독심과 신뢰로, 공간을 디자인하다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현장에서는 ‘너희 사장은 사기꾼이다’ 그러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나 싶었어요. 진짜 나는 그런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 교훈을 얻었죠.”

젊은 시절의 경험은 좋은 밑거름이었다. 2년 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권오성 대표는 자신이 적자가 나더라도 인건비, 자재비는 제대로 나가도록 하겠다, 그만의 철칙을 세웠으며 그 덕분에 그의 곁에는 10년, 20년 오래도록 함께 하는 ‘진짜 기술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사업 철학은 한편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체를 이끌어오시고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거라고. 특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좋은 일을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은 권 대표에게도 고스란히 스며들어 인성이 되고 심성이 되었다. 공사 입찰을 할 때는, 때론 배짱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때론 돈을 떠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뛰어들기도 한다는 권 대표. 그렇게 독심과 강단은 물론 인테리어 건축 디자이너로서의 섬세함과 특별한 안목도 지녔다.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면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해 보이네, 인간미가 있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신뢰가 쌓여가고 그 신뢰가 또 저의 명함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거죠.”

정수예술촌 회원으로 후원, 건축 디자이너로서의 자부심도...

디자이너로서의 섬세함과 특별한 안목은 그가 머무르는 공간 곳곳에서 드러난다. 건축 자체들이 가득한 회사 한쪽에 마련된 그의 사무실, 5평 남짓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멋진 그림이 벽면을 채우고 있고 작은 소품들

이 격자무늬 선반에 놓여 또 다른 벽면을 채웠다. 젊은 시절부터 지역 예술가들과 이웃하고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교류해왔다는 권오성 대표는 진주 정수예술촌 회원이다. 한 명의 예술가로서 또 한편으로는 후원자로서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를 전시공간으로 무료로 대여하기도 하고 초대작가전을 열어 작품을 전시할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기도 한다. 그렇게 초대작가전을 열 때면 팸플릿 제작도 도맡는다. 매년 꼭 한 점씩은 작품을 사는 것도 그만의 예술 사랑이고 자부심이다. “세계적인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도 후원자를 잘 만나서 클 수 있었죠. 사실 중소기업인이라 그렇게 큰 지원은 못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요. 작가님들은 스스로에 대한 철학으로 다양하게 세상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세나 가족이 되기 훨씬 전부터 ‘경남메세나’의 존재를 일찍이 알고 있었다는 권오성 대표, “저는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사업 열심히 해서 잘 벌어서 도움 줄 수 있는 회원사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신규회원사로서 포부를 밝힌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울 볼때 마다 찡그린 인상을 보면 자기가 불쌍한거죠. 거울에 좋은 모습을 먼저 보이면 또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 또 인생이 달라지고... 그렇게 먼저 미소를 주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건축 ‘일’, 인테리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서도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권 대표, 2024년 청룡의 해에도 한껏 독심 있게 만들어갈 이수디엔씨 권오성 대표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경남 최초의 대학생 예술인 모임 → 다양한 기회와 무대 경험 만들 터...

청년예술가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많아졌다지만 모든 정책과 지원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법, 그래서 예비 예술인으로 아직 사회에 발 딛지 못한 대학생 예술인의 불안함과 간절함은 더욱 크다. 제대로 된 기회조차 잡기 힘든 대학생 예술인들을 위해, 또 지속가능한 경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남메세나협회가 그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 젊은 대학생 예술인들의 힘찬 첫걸음을 동행했다.

지난 12월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에 자리한 진우원 강당이 '찾아가는 예술산타' 무대로 들썩었다. 20~30명 아이들은 색색의 채색 도구를 끼고 그리기 삼매경에 빠져드는가 하면 누나, 언니, 오빠들의 친절한 가르침에 어려운 동작도 거뜬히 따라해내며 크리스마스 챌린지 릴스 제작에 웃음꽃을 피웠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정하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UAF,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다. 오전에 펼쳐진 미술, 무용 체험에 이어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작은 음악회까지 열었다. 대학생 예술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첫 번째 공식 행사는 그야말로 알찼다.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UAF)는 지난해 봄부터 메세나협회가 야심차게 결성을 준비한 단체이다. 사회적으로 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예술인 중에서도 예비 예술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과 기회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서 경남메세나협회가 두 팔 걷고 적극 나섰다. 대학생 예술인들의 생각과 고민을 듣고, 이들이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고자 한 것, 경남지역 예술관련 대학 학과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고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 창신대, 창원대 5개 대학 재학생과 졸업예정자 20여 명을 1기 회원으로 하여 2023년 11월 정식 단체로 발족했다. 우여곡절도 있었다. 세무 당국에 단체를 정식으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거취 할 사무실이 없어 고민하였는데, 이때 메세나협회 임원께서 사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 설립 과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없도록 물심양면 지원했다. 2024년에는 2기를, 2025년에는 3기를 모집해 100명 정도의 규모의 단체로 키워갈 계획이다.

첫 공식 행사를 치른 기분은 어떨까? 경남대 미술교육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하고 있는 하

지수씨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난이도 조절하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잘 따라줘서 순탄했습니다"라고 밝혔으며, 또 함께한 경남대 조소 전공자 신의진씨는 "교생 실습 때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라고 소회를 전했다. 초대 회장을 맡은 신재민(경남대 음악교육과 성악 전공)씨는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예술 전공자들이 모였다.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성이지만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늘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기획하다 보면 오히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신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희망찬 포부를 밝힌다.

톡톡,

젊음의 소리를 들어봐!

MZ세대답게 평소 단독방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UAF) 학생들, '찾아가는 예술산타' 행사가 열리던 날에 특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발족 후 공식적으로는 처음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생각을 터놓은 자리라고. UAF의 향후 계획과 함께 대학생 예술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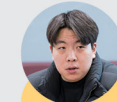
경남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UAF) 학생들의 오픈톡방

Q. 대학생 예술인의 현실은 어때?



이승민 / 인제대 음악공연예술학과 플루트 전공

무대에 서고 싶고 연주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잖아. 학부생끼리 플루트 콰르텟을 만들어서 연주 2번 해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풋값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들 줄 몰랐어.



김경민 / 창원대 음악과 트럼펫 전공

연주하려면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불러줘야 하니까 결국 인맥이 중요해. 안 그러면 직접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수밖에 없는데, 졸업하기 전에 내가 단체를 꾸려서 무대에 서는 건 사실 쉽지 않지.



Q.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UAF)가 생기니까 어때?



심준호 / 창원대 음악과 성악 전공

아무래도 내 단체가 생겼으니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고, 활동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 질 것 같고, 또 이목도 집중되니까,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신의진 / 경남대 미술교육과 조소 전공

미술과 특성상 혼자 작업을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잘 없어. 먼저 나서서 하려는 사람도 몇 없고... 몰라서 못해. UAF를 통해서 미술 전공자들도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시각을 넓혀갈 수 있게 될 것 같아.



이승민 / 인제대 음악공연예술학과 플루트 전공

우리(인제대)는 거의 왕따(?)잖아(^) 부산에서는 부산 사람들끼리만 뭉치고, 경남이지만 창원·진주와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다보니 학교 끼리 교류도 거의 없고 우리끼리 계속 소외되는 느낌이랄까, 많이 답답했는데 이제 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기분이 들어.



신재민 / 경남대 음악교육과 성악 전공, UAF 회장

이렇게 경남의 대학들이 다 모였다는 게 의미가 있고, 기획을 시작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경남예술인연합회의 도움 속에서 무언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큰 혜택이라고 생각해.

Q.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UAF), 이렇게 활동했으면 해!



김경민 / 창원대 음악과 트럼펫 전공

지금은 종종 연주 아르바이트도 하고 방과후 수업도 나가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은 아니야. 그게 가장 문제지. UAF를 우리가 잘 키워서 무대도 많이 하고 그 속에서 수익도 창출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젊으니까 어떻게 하면 클래식의 고루한 이미지를 벗기고 예술성과 대중성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색다른 시선에서 접근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박창현 / 경남대 음악교육과 타악 전공

가장 중요한 건 우리끼리의 호호 아닐까?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해.



이채훈 / 창원대 음악과 첼로 전공

학교 간에 연대감을 키워서 여러 무대에 설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린 다양한 장르가 모였으니까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지역 축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음악 연주뿐만 아니라 무용 공연도 가능하

고, 축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페이스 페인팅 같은 체험 프로그램들도 제공할 수 있겠지. 그게 우리의 장점이 될 거야.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인지도도 높여 가면 좋을 것 같아.



하지수 / 경남대 미술교육과 한국화 전공

다른 학생들에게도 우리 단체의 존재가 더 홍보 되었으면 해. 나도 운 좋게 UAF를 알게 된 것처럼 다른 친구들, 예비 예술인들이 이 단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아.



김수빈 / 인제대 음악공연예술학과 플루트 전공

이 단체를 통해서 예비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



조윤서 / 인제대 음악공연예술학과 플루트 전공

프로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 경남의 대학생 예술인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만큼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프로필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기록을 많이 남겨놓으면 좋겠어. 졸업 후에 큰 자산이 될 거야.



심준호 / 창원대 음악과 성악 전공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업으로 삼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수입도 있어야 이 단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봐. 우리의 후배나 동생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 선배들이 좋은 선례를 남겨줌으로써 우리도 저 길을 따르면 되겠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었으면 해.



Q. 대학생 예술인 정책, 달라졌으면 해!



조윤서 / 인제대 음악공연예술학과 플루트 전공

예전에 공공 지원사업에 도전해보려고 하고 양상블을 결성했는데 쉽지 않더라고.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청년의 연령 범위가 워낙 넓어서 노련하고 경력이 많은 30대 선생님들이 많이 선정되고 20대, 특히 대학생 예술인, 예비 예술인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었어. 경력이 풍부한 선배들과 붙으니 계속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신재민 / 경남대 음악교육과 성악 전공, UAF 회장

신입사원이 경력을 쌓을 수 없잖아? 대학생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무대에 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만이라도... 아예 자격 조건을 대학생, 재학생, 졸업유예생 이렇게 제한을 뒀서 비슷한 여건의 사람들끼리 경쟁할 수 있게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



젊음 특유의 패기로 힘차게 뜻을 올린 경남 대학생 예술인 연합회(UAF). 신재민 회장의 포부대로 2024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력하며 UAF만의 방향으로 멋진 향해를 해나가길 응원한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

- 서울대 경영학 석·박사 졸업
- (주)코엑스 전략기획실장
- 한국MICE관광학회, 한국무역전시학회 회장 역임
-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역임

남해안 시대의 핵심 키워드 지역 문화예술 + 관광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에는 그곳만의 문화예술이 풍성하다. 문화예술과 관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해안 관광시대를 열고 있는 경상남도가 ‘문화예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2020년 닛을 올린 경남관광재단이 ‘두고두고 오랫동안 방문하고 싶은 경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 준비를 알차게 하고 있다. 문화예술로 더 풍성해질 경남관광의 로드맵을 경남관광재단 황희곤 대표이사에게 들었다.

48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감회가 특별하셨겠어요?

1975년에 마산을 떠났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살아보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제, 통영, 하동, 남해... 18개 시군 모두 매력적이고 최근에는 합천 역세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경남은 가진 게 정말 많아요. 부산과 비교하면 인구수는 같은데 땅 넓이가 10배가량 큼니다. 그러니 관광자원들이 곳곳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전국의 광역도는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렇게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들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할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하여 고심하면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약 9개월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주력하셨던 부분은 뭘까요?

경남에겐 ‘남해안’이 정말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의 미래에도 남해안이 되게 중요해질 거다... 그 의미는 수도권과 비견할 수 있는 제2의 중심지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남해안 벨트’거든요. 거기서 관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와서 한 게 ‘남파랑길’ 활용이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바닷가를 따라 코스가 40개 정도, 600km쯤 있습니다. 그중에서 열 몇 개를 골라 상품화해서 지난 하반기에 남파랑길 도보 여행 걷기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고성 상족암 같은 곳은 참가자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또 지난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요즘 가장 핫플레이스인 서울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우리 경남 관광을 알리는 시도를 했다는 것도 성과라면 성과죠.

경남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에 대해서도 고심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감동합니다. 한 예로 요즘 캠핑이 인기이고 대세잖습니까? 합천 황매산도 오토캠핑장이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일출을 볼 수 있어요. 또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어요. 예술인들도 거기 와서 작품활동 하신대요. 자연을 벗삼아 위케이션을 하는 거죠. 높은 산임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조성되어 있죠. 또 우리 지리산의 위용이 스위스 알프스와 비교가 안돼요. 남해안 쪽으로 내려다보면 수많은 섬들이 짙~ 펼쳐져 있죠. 이걸 그 어디에서도 따라올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먹거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경남을 K-아웃도어의 성지로 만들고자 합니다.

경남의 문화예술과 관광의 연계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관광과 문화예술은 매우 긴밀한 관계입니다. 저희 관광도 문화예술이 입혀지면 관광 자체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부가가치가 높아 집니다. 우리가 파리나 베니스를 가는 이유도 거기에 문화 예술을 향유하러 가는 거죠. 밀라노도 마찬가지고요. 그곳 문화 예술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가 관광객을 이끄는 핵심이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곳만의 볼거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작가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작가, 작품이 있어도 그것을 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봐주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관광객인 거죠. 경남메세나협회나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MOU를 맺고,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관광자원으로서 매력을 가진,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있나요?

특히 미술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외에 갈 때마다 작은 도시들의 미술관을 다 돌아볼 정도로 나름대로 많이 본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경남의 아티스트 중에서 특히 미술 하는 분이 많습니다. 문신 선생뿐 아니라 이우환, 박석원, 전혁림, 김종영 선생도 있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내가 경남 출신이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다. 왜 안하냐...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스러워야 누구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경남아트 페어’를 부활시켜 경남도민 스스로 우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려고 해요. 물론 관광과의 교차지점을 찾는 일도 함께 이뤄질 겁니다.

올해는 어떤 계획과 포부를 갖고 계십니까?

2024년부터 창원 컨벤션 센터의 운영을 저희가 직접 맡습니다. 세코의 운영을 잘 해내는 것도 가장 큰 과제인데요, 좋은 컨벤션 좋은 전시회 좋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부단히 제공하자, 1년에 한두 번이 아니고 그냥 거기 가면 늘 문화와 예술이 있다, 이렇게 인식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세코 운영을 잘 해내는 게 첫 번째고요, 경남 관광 5대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중심으로 해서 힐링이나 웰니스 같은 상품들 있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안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 와서 세대로 원하는 대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맞춤형 시스템을 갖추고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해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서 마케팅할 거고요, 앞으로 펼쳐질 남해안 시대에 제대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돌담 담론

사라져가는
좋은 것들에
대하여



이석재
LEE SEOK JAE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한국창작사진가협회
부회장
- IPA국제사진가협회 회원
- 경남국제사진페스티벌
상임위원

마음을 빛나는 시간 여유를 주는 공간

● 산청요

소박한 마을 길을 구불구불 따라가자 작은 나무 표지판이 반기는 산청요에 도착한다. 산청요는 1978년 도예가 민영기 선생이 자리를 잡아 작품 활동을 하며, 단층의 작업실과 전시실을 세워 운영하던 공간이다. 2020년 기존의 단층 건물을 복층으로 확장해 1층에는 작업실과 전시실을, 2층에는 체험관을 열고, 그 맞은편에 카페 건물을 새로 세웠다. 이제는 산청을 들르는 이들이라면 꼭 방문해야 할 장소로 자리 잡은 산청요에 다녀왔다.



📍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방목로 499번길 106-5

🕒 11:00~19:00 월요일 휴무, 월요일 공휴일일 경우 정상 영업

☎ 010-4842-6962

한 땀 한 땀 손수 만들어낸 공간

● 건물 두 동 중 왼쪽에 자리 잡은 카페로 들어서자 부드러운 커피 향을 실은 훈훈한 기운이 먼저 반긴다. 평일 오후에도 손님들이 제법 많아, 산청의 대표적인 방문지라 할 만하다. 내부에는 큰 창이 나 있다. 넓은 창 너머 푸른 마당이 한눈에 보인다. 잘 조성된 마당은 추운 계절에도 소나무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아 싱그럽게 빛나고 있어, 가만히 바라보노라면 눈이 부신다. 산청의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진 산청요의 풍경은 민영기 선생이 기틀을 닦고, 산청요 2대 민범식 선생이 다듬어 만들었다. 주말에는 장작불을 때기도 하니, 마당에 마련된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 겨울의 산청요를 아주 가까이서 느낄 수도 있다.

주문을 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자 산청요 시그니처 메뉴가 눈에 띈다. 산청요의 초록 빛을 담은 ‘산청요라떼’, 미숫가루에 에스프레소를 섞은 ‘미슈라떼’ 등은 산청요에서 직접 고안한 메뉴들이다. 과일 청이나 팥 등 필요한 재료들과 산청요 가래떡, 인절미 토스트 등 곁들임은 카페에서 직접 만들고 굽는다. 일부터 이곳을 찾은 이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자 함이다.

이곳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컵과 그릇들이다. 보기에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용기들은 산청요 2대 민범식 선생이 직접 만든 작품이다. 카페 한쪽 벽에도 그의 작품이 전시돼 있으니, 메뉴가 나올 동안 잠시 감상해도 좋다.

도자의 매력을 느끼는 시간

● 따듯한 차로 마음을 녹인 뒤, 카페에서 나오면 맞은편에 또 다른 건물이 보인다. 바로 전시실과 체험실이다. 먼저 커다란 도자기 작품이 선 1층 전시실 안으로 들어서자 민영기 선생이 만든 작품들이 전시실을 가득 메우고 있다. 공간의 규모는 작지만 그의 작품 세계를 엿보기에는 충분하다. 입구 바로 왼쪽에는 민범식 선생의 분청 생활용기들도 놓여 있으니, 2대를 이어오는 산청요만의 색깔을 둘러볼 수 있다.

전시실을 나와 2층으로 오르면 도자기 체험관이다. 한 번에 최대 4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이다. 산청요 2대 민범식 도예가가 직접 체험을 도와주고 있어, 도자기 초보라도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덕분인지 학생들, 외국인들, 가족 단위 등 다양한 체험객들이 꾸준히 이곳을 방문한다. 도자기 체험은 산청요에 전화로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흙을 빚고 불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의 도자기가 완성되듯, 정성으로 차곡차곡 세월을 쌓아 만들어진 공간 산청요. 지금은 도자기를 보고, 만들고, 느낄 수 있는 도자문화공간이지만, 앞으로 문화예술 공연 등을 개최할 계획도 있다고 하니,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산청요를 기대해보자.

1

문화예술의
가치를 공유하다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는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메세나 활동 참여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내 고장 기업사랑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도내 주요 도시들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공연이다. 올해는 찬란한 가야의 문화예술적 자산을 간직한 김해시에서 처음으로 열려 지역민들과의 소통의 장이 되었다. 공연에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와 발레리나 김주원, 뮤지컬 배우 최정원, 가수 인순이 그리고 KNN방송교향악단이 품격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가을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공연에는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이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준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가족들을 비롯하여 1,000여 명의 도민들이 함께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역의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문화예술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였다. 예경탁 경남메세나협회장은 “오래된 미래를 꿈꾸는 역사 문화 도시, 김해시에서 처음으로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를 열게 돼 더 의미가 크다”라면서 “오늘의 축제의 무대가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이 나날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환영의 인사를 남겼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주최하고 BNK경남은행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가 지난 9월 8일(금) 김해 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콘서트는 매년 예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프로그램 구성으로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 또한 알차게 구성되었다. 공연은 이견륜 지휘자가 이끄는 KNN방송교향악단이 연주하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오페레타 「박쥐」의 서곡으로 성대하게 시작되었다. 힘차고 화려한 선율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즐거운 왈츠 곡조가 돋보이는 이 작품은 관객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무대를 이어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덕우는 토마소 안토니오 비탈리의 ‘사곤느’를 연주하며 활기가 넘치는 무대에 무게감을 더했다. 바이올린이 가진 애잔한 음색과 원숙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만나 깊이 있는 무대를 연출했다.

이어 어둡해진 무대 위에 핀 조명이 비치고, 발레리나 김주원이 무대에 올랐다. 15년 동안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약한 발레리나 김주원은 2006년 무용계 최고의 권위의 대회인 브누아 드 라 당스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프리마돈나다. 이번 공연에서 김주원은 카를로스 가르델과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에 맞춰 ‘탱고 발레’라는 색다른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함께 무대에 오른 발레리노 김희현 역시 우아한 몸짓과 섬세한 표정 연기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콘서트의 열기는 뮤지컬 배우 최정원과 가수 인순이의 등장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최정원은 본인이 출연한 뮤지컬의 주요 메들리와 박춘석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등을 부르며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뮤지컬 작품으로 김해를 꼭 다시 찾을 것을 약속했다. 인순이 역시 ‘열정’, ‘친구여’, ‘거위의 꿈’ 등 자신의 대표곡들을 열창하여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거위의 꿈’을 부르면서 수어로도 함께 노래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관심과 유대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엔데믹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처음 김해에서 열린 이번 기업사랑 메세나 콘서트는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회복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억되었다.



2

메세나로 경남을 빛낸
별들의 축제

2023 경남메세나대회



2023 경남메세나대회가 지난 11월 28일(화) 창원 리베라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한 해 동안 메세나 정신을 실천하며 예술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남의 메세나인들이 모두 모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든든히 예술 지원에 매진해 온 기업과 개인 그리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 예술단체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응원이 쏟아졌다.



올해로 16년째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메세나협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최초로 기업과 예술단체 200개 팀 이상 결연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까지 기업들의 지속적인 후원과 메세나 활동이 큰 역할을 하였기에 2023 경남메세나대회의 의미는 더욱 깊었다.

이번 행사에는 메세나 기업인과 도내 문화예술단체 대표, 유관기관장 그리고 청년예술인 200여 명이 참석하여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기념하고, 지속가능한 경남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해 소통했다. 예경탁 경남메세나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예술 지원에 선뜻 나서준 지역 기업과 예술활동을 열정적으로 이어온 예술인, 그리고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지역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더 긴밀히

상생하여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도록 분발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예술인들의 열정이 지역의 문화예술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고 기업인들과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화예술 지원으로 사회 공헌을 실천한 4개 기업과 1개 예술단체, 1명의 개인 그리고 2명의 문화예술유망주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무대에 오른 문화예술유망주들의 공연 그리고 특별 초청된 조선팝밴드 소리치레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는 다채롭고 풍성하게 치러졌다.





Gyeongnam Mecenat Awards

대상

(주)CTR
회장 강태룡



1952년 작은 부품가게, '신라상회'로 시작하여 현재 연 매출 1.6조 원 이상을 달성하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한 (주)CTR은 전 세계 완성차 제조 기업에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직원의 행복, 고객의 신뢰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여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동시에 모범적인 메세나 활동으로 도민들이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고 있다.

메세나 정신을 세상에 알리다

(주)CTR의 강태룡 회장은 문화예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일찍이 깨닫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2005년부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창원에 품격있는 공연과 전시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2007년 경남메세나협회 설립 당시, 누구보다 앞장서서 메세나의 정신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후 오늘까지, (주)CTR은 경남메세나협회 부회장사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예술 현장 곳곳에 사랑을 전하고 있다. 2012년 창원국악관현악단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고성오광대보존회를 적극 후원하며 우리의 것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함께 힘을 쏟았고, 음악, 미술, 연극, 오페라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덕분에 예술단체들은 보다 나은 창작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있다.

문화로 하나 되는 회사

일하기 좋은 직장을 지향하는 (주)CTR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강조한다.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연함과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 경영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특히, 독서문화를 강조하며 회사와 공장 곳곳에 북카페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창조와 혁신의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런 문화 덕분에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독서문화상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하는 예술단체들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직원들이 예술을 통해 위로받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문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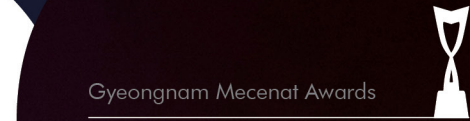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주)다우링에너지를 이끄는 이종호 대표이사는 탄탄한 재무구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김해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인이자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메세나인이다.

먼지 가득한 세상도 예술의 힘이라면

이종호 대표이사는 환경을 정화시키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보듬는 힘은 바로 문화예술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 2008년 예술로 세상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설립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회원사로 활동하며 지속적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기여해오고 있다. 2014년에는 협회 감사직을 맡으며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연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변 기업인들에게도 메세나와 문화예술 후원의 가치를 알려왔다. 아울러 경남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는 먼지 가득한 세상도 예술의 힘으로 정화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메세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림자를 만들지 않는 문화예술 사랑

대부분의 문화예술인, 예술단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분야는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어떤 분야는 외면당하곤 한다. 이종호 대표이사는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음악이든 미술이든, 인기 장르든 비인기 장르든 가리지 않고 어려운 예술단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후원해오고 있다. 그는 기업이 경영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듯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치유와 감동을 전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예술은 닮아있으며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경남의 문화예술이 도민들의 일상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메세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경남의 예술인들을 응원하고 있다.



Gyeongnam Mecenat Awards

메세나인상

이종호
(주)다우링에너지 대표이사





세상을 치유하는 음악의 힘

당당한방병원 김해점의 서종길 원장은 급박하게 흘러가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의 체질, 특성에 기초한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마음 건강을 위해서는 음악을 추천한다. 그 또한 음악이 주는 치유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군에 입대하면서 4주 훈련을 받는 동안 음악이 전혀 없는 시간을 보내다 우연히 훈련 장소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들은 음악 한 소절에 큰 위로를 받았으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생생하다고 말한다. 서종길 원장은 음악애 호가로서 김해 시민들의 마음건강 지킴이로써 지역 음악인들을 후원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역 문화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

그저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시작된 음악인들과의 인연과 우정은 지역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는 가야오페라단 후원회장이자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 디엠솔리스트앙상블 등 지역 예술단체들을 후원하는 지원군으로써 메세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당당한방병원 김해점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가야오페라단은 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토스카〉 등 수준 높은 그랜드 오페라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었다. 또한 김해 지역의 숨은 역사적 인물들을 발굴하여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에도 큰 힘을 보탰다. 당당한방병원 김해점의 지원에 힘입어 활동을 펼쳐가는 음악인들은 병원의 재정적 지원보다 더욱 힘이 되는 것은 정신적 지지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당당한방병원 김해점의 서종길 원장과 임직원들은 객석에서 누구보다 열렬히 지역 음악인들을 응원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함께하는 삶’의 가치

극단 ‘큰들’의 무대가 끝나면 늘 울려 퍼지는 우렁찬 목소리가 있다. “제일 낫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청담한의원 김명철 원장이다. 산청군 신안면에서 청담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명철 원장은 의술로는 아픔을 치유하고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서 세상을 웃음을 전하면서 함께 나누어 더 넉넉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 좋은 작품을 통해 관객들과 웃음과 감동을 나누고 인정과 배려의 가치를 전하는 극단 큰들의 모습에 반해 후원회원으로 처음 인연을 맺고 20여 년째, 이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명철 원장은 우리의 후원으로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 작품을 관객들과 즐기며 행복을 함께 나누니 얼마나 즐거운 일이나고 말한다. 청담한의원의 나눔은 문화예술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매주 목요일이면 성심인애원 한센병원을 찾아 침술 봉사를 실천하고 소외된 곳의 이웃들을 위한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한지 벌써 30년째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좋은 한의사이자 벗,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청담한의원은 지역의 활동가, 산청군민들과 함께하는 ‘목화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목화장터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수제품을 판매하는 장터로 한 달에 두 번 산청에서 열린다. 장터가 열리는 날이면 큰들 단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지역민들과 신명나는 놀이 한 판을 벌이기도 한다. 이 밖에도 산청어울림합창단을 만들어 활동하며 산청의 문화를 밝히고 있다. 또 앞으로 지역 주민과 의료진이 협동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 생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좋은 한의사이자 벗, 그리고 좋은 이웃으로 산청을 지켜갈 예정이다.



일터를 즐기터로

2014년 창단한 경남A&B오케스트라는 경남 도내의 직장인들이 모여 만든 오케스트라다. 공무원부터 엔지니어까지 직업도 제각기 다르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은 모두 닮아있다. 처음에는 연습 중 박자를 놓치고 악보를 더듬거리던 일이 허다했지만 60인조 오케스트라로 성장한 지금,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다. 꾸준한 정기연주회 개최는 물론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초청받으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전개하던 중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이 줄어들고 였던 데 뛴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겹쳐 연습조차 어려워졌다. 이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준 것이 바로 단디병원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의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되었지만 단디병원이 결연을 결심한 이유는 일터를 즐기터로 바꾼다는 경남A&B오케스트라의 설립 취지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복한 병원,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 경남A&B오케스트라를 돕기 시작했다.

기업과 예술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과의 상생

단디병원과 경남A&B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동행은 예술로 지역민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하고 있다. 단디병원의 든든한 지원으로 경남A&B오케스트라는 음악의 열정을 품은 직장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있고, 이들의 음악은 무대에서 울려 퍼져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단디병원과 경남A&B오케스트라는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산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희망을 커는 첼리스트

백시온 학생은 7살 처음 첼로를 접하고, 활을 잡은 지 불과 7개월 만에 출전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능을 인정받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으로 선발되었으며 KB청소년음악대회에서도 우수한 학생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스승을 두루 거치며 성장해왔다. 동서음악콩쿠르 1등, 전국학생음악콩쿨 첼로 부문 고등부 2위 등 다양한 대회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4학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 앞두고 있다. 앞으로 멋진 첼리스트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의 길을 정진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백시온 학생의 앞날을 응원한다.

자신만의 색깔을 입힐 줄 아는 피아니스트

‘똑같은 곡을 연주해도 김나영이 연주하면 그녀만의 색깔이 묻어난다!’ 김나영 학생을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단순히 악보를 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음표와 음표 사이의 이야기를 청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연주일 것이다. 그 열정에 성실함이 더해져 김나영 학생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콩쿠르를 섭렵하였으며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연주뿐만 아니라 교직 이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음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무대 위에서는 연주자로, 때로는 누군가의 선생님이로 세상에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한다는 그녀. 김나영 학생이 만들어 갈 아름다운 세상이 무척 기대된다.



아름다운 동행을 넘어,

경남메세나협회 회원사 문화서비스

문화예술로 온기를 나누고 시골 벽적인 연
말 화식 대신에 연극을 감상하며 품격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곳이 있다. 경남메세나
협회의 회원사 문화서비스인 ‘찾아가는 음
악회’와 ‘문화 송년회’를 활용하는 회원사
들의 이야기다.



새해 시작은 손주들의 재롱잔치로, 아나파악국×경남뮤지컬단

차분한 분위기 속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분위기 속 어느 요양병원에는 반가운 손님이 오셨는지 유독 시골벽적했다. 아나파악국과 경남뮤지컬단이 준비한 찾아가는 음악회 때문이다. 경남뮤지컬단 단원들은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배려하여 방학도 반납한 채 어여쁘게 꽃단장을 하고 병원을 방문했다. 친손주처럼 다정하고 밝은 미소로 무대를 가득 채운 단원들을 보고 있노라니 어르신들의 입가에도 어느새 미소가 번졌다. 기업과 예술단체의 아름다운 동행이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으로 이어진 훈훈한 시간이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공간, 남광디씨텍×가야오페라단

남다른 끈끈함으로 상생을 이어가고 있는 남광디씨텍과 가야오페라단. 이 기업과 예술단체가 주고받는 시너지효과는 서로를 넘어 김해시민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김해 장유지역에 새롭게 오픈한 복합문화공간 언앤드에서 가야오페라단이 처음으로 연주회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의 탄생을 알린 것이다. 손님들은 그윽한 커피 향기뿐만 아니라 클래식 선율에도 매료되었다. 대중적인 공간에서 클래

식을 접할 수 있어 김해시민들은 보다 편안하게 클래식을 즐겼으며 연주자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누리기도 했다. 세련된 공간과 맛있는 커피, 여기에 가야오페라단의 아름다운 선율이 더해져 김해 시민들의 눈과 귀를 기쁘게 해준 밤이었다.

무학의 문화예술 사랑, 무학×442양상블

무학은 경남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동시에 남다른 문화예술 사랑으로도 유명하다. 무학의 남다른 문화예술 사랑은 지난해에도 다양한 장르에 골고루 전해졌다. 지역 미술작가들의 작품 홍보를 위해 현장 경매전을 개최, 대중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작가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서 끝이라면 무학이 아니다. 젊은 음악가들을 위해서도 무대를 내주었다. 청년 예술인들로 구성된 젊은 현악4중주팀인 442양상블을 초청하여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 기업의 문화예술 사랑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지역 문화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무학이 앞장서고 있다.

1. 남광디씨텍×가야오페라단
2. 아나파악국×경남뮤지컬단
3. 무학×442양상블

경남메세나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기업의 문화경영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회원사 문화서비스 문의. 055-285-5613



함께 나누어 더 의미 있게,

경남메세나 문화나눔사업

문화나눔을 통해 더 행복한 경남을 가꾸어
가는 경남메세나협회의 문화나눔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1. 호두까기 인형
2. 나눔티켓-헬가 스텐첼(1)
3. 나눔티켓-헬가 스텐첼(2)

행복한 나눔공연

경남메세나협회는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도민들의 삶에 문화예술을 선물했다. 선소리산타령보존회와 백지원 명창은 공연장 방문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 어르신들을 찾아 신명나는 잔치 한 마당을 펼치는가 하면 전문 실내악 연주단체인 경남첼버쏘사이어티와는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어울림 음악회를 개최하여 마음을 살피었다.

나보다 너를, 언제나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CWNU브라스앙상블은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사회복지 실천가들에게 에너지 넘치는 팡파르와 화려한 연주를 선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성탄 이브에는 도내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예술인연합회와 함께 <찾아가는 예술산타> 프로그램을 기획,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함께 나누어 더 즐겁고 의미있는 예술의 즐거움을 공유하기도 했다.



즐거운 나눔티켓

협회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문화예술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7-8월에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을 위하여 <헬가 스텐첼 창원특별전> 티켓을 나누었다. 감쪽하고 위트 있는 작품들 덕분에 전시를 관람하는 내내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가을에는 생택쥬페리의 동명소설 <어린 양자>를 원작 스토리에 서정적인 음악과 영상이 가미된 뮤지컬에 도내 청소년 40명을 초청하여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말 시즌에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과 유니버설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에도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나눔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다.

함께 나누면 더욱 행복한 문화예술. 지역민들의 삶이 문화예술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경남메세나협회가 함께합니다.

문화나눔사업 문의. 055-285-5612

5

경남메세나협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트프렌즈

경남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다.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5년째 지역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여름, 공모를 통해 LH와 함께 창의적 역량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갈 12명의 아트프렌즈들이 선정되었다. 음악과 시각예술, 전통예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도내 구석구석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며 문화예술의 향기를 퍼트렸다.

가치의 재발견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통예술 분야 단체들을 적극 지원하여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의미 있는 사업들을 시행했다. 손양희 국악예술단은 사천읍성에서 〈풍류콘서트〉를 열어 태평무, 가야금 병창, 시조창, 판소리 무대를 선보이며 우리 가무의 매

력을 알렸다. 경남국악예술단 가인 역시 소리꾼들과 함께하는 〈신명 국악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 공연은 거동이 불편하여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 어려운 부곡온천병원의 환우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어 더욱 뜻깊었다. 멸종 위기 야생동물인 따오기의 습성과 모습을 우리 춤으로 표현하는 우포따오기춤보존회는 창녕 만옥정 야외공연장에서 우포따오기한마당 〈따오기, 우포에 다시 날다〉 공연을 펼쳐 우포늪 보존의 필요성을 되새기고 우포 따오기춤의 예술성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1. 경남국악예술단 가인 〈신명 국악 힐링콘서트〉
2. 우포따오기춤보존회 〈따오기, 우포에 다시 날다〉
3. 경남미술협회 〈아홉 빛깔 경남 미술 동행전〉
4. 웅마재즈오케스트라 시민과 함께하는 웅마음악회



2

모두의 아트프렌즈

LH의 후원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가게 된 예술단체들은 도민 모두가 이 사업의 수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구석구석을 누볐다. 홍익문화예술협회는 의령군에서 〈찾아가는 문화교실〉을 열어 현대 한국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수강생들과 협업하여 〈예품展〉을 기획, 지역민과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였다. 경남미술협회는 도내 9개 군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많은 도민에게 소개하는 〈아홉 빛깔 경남미술 동행展〉을 개최하여 대중들에게는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지역 작가들에게는 전시를 통해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밖에도 웅마재즈오케스트라와 CWNU

윈드오케스트라, 아젤리아콰이어 등 예술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개최하여 고단한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로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3



4

6

경남메세나협회,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재인증

지난 11월 9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SKY31 오디토리움에서 개최된 2023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경남메세나협회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재인증 받았다. BNK경남은행과 ㈜무학은 도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재인증 받아 인증패가 전달되었다.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와 함께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문화예술후원인증제도 인증식에서는 문화예술후원에 기여해 온 신규 기업과 단체 20곳이 새롭게 인증을 받았고, 23곳이 재인증을 받았다.

지난 2015년 경남메세나협회는 문화예술후원 매개와 지원 그리고 문화예술후원 인식 확산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대한민국 제1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2018년과 2020년에 재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2020-2022년도 활동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아 그 자격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경남 대표 향토기업, 우수기관으로 재인증

이날 인증식에는 경남 대표 향토기업인 BNK경남은행과 ㈜무학이 함께해 더욱 의미 있었다. 문화예술후원법은 문화예술 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올해 경남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BNK경남은행과 ㈜무학이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은 것이다.

BNK경남은행은 문화예술 후원을 담당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장사로서 협회의 창단과 운영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 밖에도 경남은행 갤러리를 운영하며 지역 예술인들에 무료로 대관하여 전시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드림스타 사업'을 통해 예체능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도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꿈을 키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학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보존회를 비롯 경남미술협회, 마산미술협회 등 지역 예술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의 역사성을 담은 콘텐츠인 부마항쟁 영화 제작에도 후원하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지역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문화예술후원기관 인증은 향후 3년간 유지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제공된다. 또한 인증 기간동안 인증패가 우수기관 인증 마크 활용, 후원 활동에 대한 홍보,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언론홍보, 문화향유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Tel. 061-900-2301, 02-3786-0596

E-mail. artm@arko.or.kr, patron@kmac.co.kr



전국 메세나 단체장 간담회

메세나 활동의 전국적 활성화와 지역 메세나 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2023 전국 메세나 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1월 15일(수) 웨스틴 조선 서울 코스모스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메세나협회 김희근 회장, 경남메세나협회 김윤세 부회장, 제주메세나협회 양문석 회장, 세종시메세나협회 이두식 회장, 부산메세나협회 백정호 회장과 각 협회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각 단체의 운영 현황 및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메세나 전국망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안하였다.

전국 메세나단체 위치



전국 메세나단체장 오찬 간담회

2023. 11. 15. 웨스틴 조선 서울 코스모스룸



메세나 전국망 구축 사업 추진 경과

2014년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지역 문화 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 메세나 단체를 매개로 한 기업 예술후원 활동의 전국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한국메세나협회를 주축으로 경남메세나협회와 제주메세나협회가 협력하여 메세나 전국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였다. 이후 세종시메세나협회(2020년)와 부산메세나협회(2021)가 설립을 지원, 현재 전국적으로 5개의 메세나단체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에는 경북과 대구 지역에서 메세나협회가 신규로 발족하였으며 올해부터는 광주와 충남에서도 메세나 단체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모인 전국 메세나 단체장들은 기존 5개의 메세나협회와 신규 설립 단체들을 포괄하는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가칭)'의 연내 출범에 동의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다.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는 지역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지원의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술지원에 필요한 공공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4 경남 예술지원 매칭펀드



「2024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이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도와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예술단체에 추가로 펀드지원금을 교부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이다.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4년 2월 1일(목) ~ 27일(화) 18:00까지(예정)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의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기타 |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법인과 국·공립 대학교 기업 및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친목단체 성격의 조직 제외) 공공기업의 지역본부 및 지사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업 등

예술단체 |

경남도내 소재하는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임의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예술단체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주관단체 및 문화예술 시설 등

접수

우편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층 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이메일 : gnmecenat@gnmecenat.or.kr

결연형태

1:1 결연 | 1개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1:多 결연 | 1개의 기업이 다수의 예술단체 지원

多:1 결연 | 다수의 기업이 1개의 예술단체 지원

제출서류

기업 | <매칭펀드 지원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예술단체 | <매칭펀드 지원신청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지원계획서 및 신청서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심사기준

기업 |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역량, 지속적 지원 가능 여부 등

예술단체 | 사업 추진 계획, 교류협력 활동 계획, 과거 활동실적 등

지원금액

기업지원금과 펀드지원금의 1:1 매칭을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펀드지원금의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문의

(사)경남메세나협회 사무국 055-285-5611~3

Francis Bacon

처음 그림을 마주한 순간 불쾌해졌다.
이런 그림을 누가 그렸지?



프랜시스 베이컨 닭지 않은 듯 닭게 그리기

시시각각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함에 마음이 끌리는 나는 보이는 그대로 표현한 인상주의(Impressionism) 그림의 따뜻함을 좋아한다.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의 《회화 1946》을 처음 본 순간 ‘잔혹’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도살장 느낌이 나는 공간에 십자가 형태로 매달려있는 고깃덩어리와 우산 속 꼭지로 얼굴 반쯤은 빨려간 듯한 침팬지 형태의 남자 얼굴이 그려진다. 처져있는 입 끝은 괴기스러운 느낌을 물씬 풍기고 정장 차림의 모습은 영국 정치인이라는 해석도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그린 그림이라 작품을 통해 인간의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면을 표현한 것인지 몰라도 불안한 미소는 주변의 검은색으로 인해 더 한 공포스러움을 자아낸다. 그러나 베이컨 삶의 궤적과 그의 대리인이면서 미술평론가인 데이비드 실베스터와의 대담을 실은 「나는 왜 정육점의 고기가 아닌가」를 읽는다면 베이컨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작품을 해독하는 시각적 리터러시(Visual Literacy)가 촉진될 것이다.

아일랜드 출신 영국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은 부유하고 엄격한 아버지와 마찰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베를린에 있는 삼촌 집을 거쳐 떠돌이 생활을 했다. 동성 연애자였고 미술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화가로 인정받기 전까지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Knowledge is Power)’라는 어록을 남긴 16세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배 다른 형 니컬러스 베이컨의 후손이기도 하다. 또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손자인 루시안 마이클 프로이트(Lucian Michael

Freud, 1922~2011)를 모델로 한 삼면화를 그릴만큼 두 사람은 절친 관계였으니 우월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든다. 2005년과 2008년에 미술전문 잡지인 아트리뷰가 선정한 세계미술계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오르기도 한 데미안 허스트와 영화 ‘인셉션(Inception)’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비롯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준 뮤즈이기도 하다. 특히 1989년 팀 버튼이 연출한 ‘배트맨’에서 조커와 악당들이 미술관을 습격해 모든 작품들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베이컨의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은 마음에 드니 그냥 뒤”라고 부하들을 말리는, 조커가 유일하게 사랑한 화가이기도 하다.

베이컨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 화가로서 길을 걷게 만든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을 보자. 이 작품은 인간의 본능적이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세 폭의 화면속에 담은 삼면화(Triptych)로 유명하다. 베이컨은 과거 대성당의 종교적 독해를 위해 제작되었던 제단화의 일종인 삼면화를 즐겨 그렸다. “나는 3개의 캔버스에 분리되어 그려진 이미지들을 나란히 늘어놓기를 좋아한다”라며 1944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1992년까지 30여 점의 삼면화를 제작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었다. 인간도, 그렇다고 동물도 아닌 괴기한 모습을 한 형상이 좌절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본능적인 슬픔과 공포와 분노를 표현하였다.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은 베이컨을 화가로서 세상에 알린 삼면화 중 대표작이다. 자화상이거나 타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든 이 작품은 현재를 숨 가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다. 바탕색이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만 같아서 작품 속 존재의 고통이 강하게 와닿는다. 베이컨은 본능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간의 본모습에 가깝다며 인간 내면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감정들을 끌어들이며 극적인 표현을 하였다.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는 베이컨 작품을 ‘살로 된 강에서 솟아난 이미지’라고 말했다. 그만큼 구상적이기만 한

재현에서 해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기만 하는 그림이 아닌 리듬과 기운을 느끼는 사물 아래 흐르는 힘을 그렸다면 ‘형상’이라는 텍스트를 그의 저서 「감각의 논리」를 통해 베이컨에게 선물하였다. 베이컨 그림을 보고 있다면 가장 특징적으로 와 닿는 것이 2가지 정도가 있다. 그중 첫 번째는 잔혹하고 괴기한 그림에 비해 색이 너무 아름답고 조화롭다. 프랑스어 사전에서 단일색조, 매끈함으로 명시되어 있는 아플라는 베이컨 작품 속 바탕색인 편평하고 넓은 단색인 순수 색면을 의미한다. 핑크와 노랑, 그리고 은은한 느낌의 회색은 색채의 마법사 마티스를 능가한다. 작품 속 형상들은 무시무시한데 색감이 아름다우니 서로 연결되지 않는 선상에서 묘한 매력을 느낀다. 베이컨 작품은 사실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사물의 형태가 없는 것도 아니니 추상주의도 아니다. 그래서 들뢰즈는 ‘형상(figure)’이라 했으며, 형상은 색면으로 된 아플라(aplat)를 배경으로 하고, 윤곽(contour)은 형상과 아플라를 경계 짓는 역할을 하면서 고립과 교환을 한다. 윤곽이 형상을 고립시킬 때에는 동그라미나 육면체로 감싸고 교환 시에는 세면대이거나 우산일 수도 있고 거울을 통해서 나아가려 하다 보니 안간힘을 쓴다. 그래서 온 몸에는 경련이 일어나며 형상은 뒤틀리고 변형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의 특징은 안간힘이다.

형상이 아플라로 나아가기 위해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아플라에서 형상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저절로 노력이 느껴지는데 이곳에서는 윤곽이 매개물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윤곽은 빠져나가기 위해 수축하거나 팽창한다. 보여지는 시각적인 실체만이 아닌 작품 속 흐르는 힘을 담기 위해 사물을 변형하고 해체하면서 회화적인 감각을 지속시키려 노력했던 베이컨, 그는 실베스터와 대담에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면 바보같은 짓도 서슴치 않아야 된다고 말한다. 철학이나 사회적 이슈 같은 개념적인 요소들이 예술에 스며들어 관람객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림은 작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트렌드 작품의 키워드는 뻔한 이야기겠지만 ‘공감’이다. 개인화로 소통이 마비된 사회는 공통적인 관심사로 위로가 무엇보다 필요한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1. 《회화 1946》, 1946, 린넨에 유화, 198×132cm, 뉴욕현대미술관
2. 《십자가 책형을 위한 세 개의 습작》, 1944, 유화와 파스텔, 94×74cm, 런던 테이트브리튼
3. 《세면대 위의 형상》, 1976



▶ 추천영화

더 컨덕터(The Conductor)(2018)



© ㈜라이콘텐츠

러닝타임 139분, 감독: 마리아 피터스,

주연: 크리스탄 드 브루인

: 김민재 [세종국악회관 사무국장]

퓨전국악연주단 세종국악회관에서 타악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연주단 파랄타

음악감독으로 장애인예술인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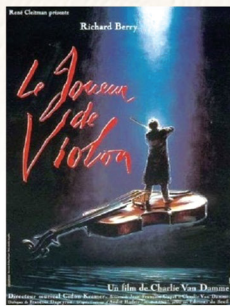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지휘봉을 든 여성이 궁금하여 클릭하였다. 단순히 여성 지휘자의 삶을 그려낸 감동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시대 배경이 나오는 순간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가늠이 되었다. 1926년 뉴욕 ‘안토니아 브리코(1902-1989)’는 공연장에서 객석 안내 일을 하며 지휘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직원은 공연을 볼 수 없음에도 좌석 통로 앞에서 관람하다가 해고된다. 음대에 진학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주인공은 피아노 반주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기 시작하였고 이일을 계기로 다양한 음악가들과 접촉하며 꿈을 키워간다. 공연장 매니저인 프랭크 톱슨과 우연한 만남이 거듭되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다. 유명한 연주자를 무작정 찾아가 자신을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계속되는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들의 제자가 된다.

여성 최초로 베클리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졸업하여 많은 축하와 격려를 받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1934년 여성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였고, 이때 피아노 반주자로 일할 수 있게 도와준 더블 베이스 연주자 로빈이 사실은 여성이며, 자신의 유학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대망의 첫 연주를 앞두고 반대 세력들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하지만, 엘레노어 루스벨트 영부인이 후원하기로 약속한다. 그렇게 맞이한 뉴욕시청에서의 첫 공연 당일 1500석이 매진되고, 안토니아의 지휘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가 연주되면서 영화는 끝난다. 영화 대사 중 “예술가에게 가장 큰 도전은 실망을 이겨내는 것이다.”라고 주인공이 독백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대사는 비단 예술가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대입을 위한 시험, 취업을 위한 면접, 승진을 위한 프로젝트가 잘 안 되었을 때 실망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끝으로 영화의 시대보다 약 100년이 흐른 지금도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숙제로 남겨진 듯하다.

Player's

▶ 추천영화

The Violin Player(1994)



러닝타임 124분,

감독: 찰스 벤 담므,

제작: 르네 클레이망,

주연: 리샤르 베리,

음악감독 및 연주: 기돈 크레머

© PDG앳파트너스

: 허준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대표]

바이올리니스트 겸 지휘자다. 창원지역에서 활동

중이며 코리안드림신포니에타 악장,

경남챔버소사이어티 멤버, 솔리스트양상을 피고

음악감독, 경남A&B 오케스트라 지휘자이며 꿈의

오케스트라 창원 부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현재

진주시립교향악단 바이올린 부수석 단원으로 재직

중이며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외래교수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주인공 바이올리니스트는 오케스트라와 늘 협연을 하고 후원사와 기획사를 통해 음악적 주문을 받으며 당시 능력 있는 연주자로 활동한다. 그러다 음악적 가치의 차이와 스스로의 만족이 없는 삶을 살며 어둡한 지하에서 생활하다가 자신보다 어렵고 상처받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연주,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파르티타 2번 ‘샤콘느’를 연주하면서 음악적 가치와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내용으로 영화는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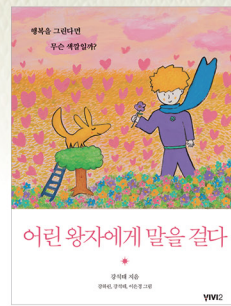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들

추운 계절, 마음까지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이야기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나간 정신과, 자연과 가족을 통해 느끼는 일상의 행복, 또 어둠을 빛으로 바꾼 음악까지, 희망을 전하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한다.

Playlist

▶ 추천도서

어린 왕자에게 말을 걸다



: 김혜은 [아트경남 운영이사]

아트경남 운영이사를 맡고 있으며 경남미술청년작가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고 진해문화원 위원과 한국미협 진해지부회원, 진해청년미술작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비비투

행복을 그린다면 무슨 색깔일까? 어린 왕자 이야기를 주제로 일상과 행복을 그리는데 강석태 작가의 신작 〈어린 왕자에게 말을 걸다〉를 추천한다. 강석태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하고 동·서양의 재료와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며 17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 기업과의 아트 콜라보레이션 등에 참여하며 회화작업을 하는 작가다. 특히 그는 2002년 무렵부터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서 느낀 영감과 따뜻한 감성에 작가적 상상력을 덧붙여 작가 자신만의 어린 왕자 이야기를 그려오고 있다.

〈어린 왕자에게 말을 걸다〉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여름 가족과 함께 총 3번의 제주 한 달 살기를 하며 느꼈던 감정과 에피소드가 화가인 아빠와 엄마 그리고 화가를 꿈꾸는 9살 딸의 시선으로 전개된다. 이 책은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누구나 한번은 아이였을 어른들에게 잊혀 가는 동심과 상상을 자극하고 늘 곁에 있어 당연하게 여겨왔던 가족의 존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한다. 제주의 하늘과 바다, 숲과 오름의 풍경, 소박한 가족의 삶과 끈끈함. 이 모든 것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어우러져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어쩌면 행복의 색깔은 우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자연과 가족의 색이 아닐까? 이 겨울,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 소중한 일상에 다정하게 말을 거는 책, 어린왕자를 마주했던 순수함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 따뜻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는 이 책을 추천한다.

보통 Ordinary 사람들의 People, 찬란한 Splendid 역사 History

경남도립미술관 3층
45전시실
3F Gyeongnam Art
Museu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
경남도립미술관

296, Yongji-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GAM

후관 매주 월요일,
설날, 추석
그리고
1월 1일

2023.10.27.
— 2024.2.25.

Closed on
Every Monday,
Seollal, Chuseok
and January 1st

GAM Gyeongnam
Art Museum
<https://www.gyeongnam.go.kr/gam>
+82 (0)55-254-4600

관람시간
화-일
10:00
— 18:00

Opening Hours
Tue—Sun
10:00 — 18:00

무 안

김상돈
Kim Sangdon

신지선
Shin Jisun

조현택
Cho Hyuntaek

서윤희
Yoonhee Ryoony Suh

홍이현숙
Hong Lee
Hyunsook

수

히 녕

2023. 11. 24.
— 2024. 2. 25.

경남도립미술관
Gyeongnam Art Museum

조대용
Jo Daeyong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최웅택
Choi Woongtaek

M O W

I

S

D E

S F S

GAM Gyeongnam
Art Museum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
296, Yongji-ro, Uichang-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82 (0)55-254-4600
www.gyeongnam.go.kr/gam

창원문화재단 상반기 시즌 기획공연 & 전시 프로그램



성산아트홀

YOU ME IS SPRING **모닝**

2. 6.(화) am 11:00 / 소극장

엑시트의 아카펠라 여행 **모닝**

3. 12.(화) am 11:00 / 소극장

키즈 애니메이션 콘서트 **키즈**

3. 16.(토) pm 5:00 / 소극장

질은 봄 : ZITTEN **토콘**

3. 23.(토) pm 5:00 / 소극장

뮤지컬 레베카

3. 30.(토) ~ 31.(일) / 대극장

신인음악회

4. 5.(금) pm 7:30 / 소극장

해설이 있는 4cellos **모닝**

4. 9.(화) am 11:00 / 소극장

클래식 타임머신 **키즈**

4. 27.(토) pm 5:00 / 소극장

효 콘서트

5. 8.(수) pm 7:30 / 대극장

홍경민 밴드 UTOPIA **모닝**

5. 14.(화) am 11:00 / 소극장

정성하&김현우 DUO **토콘**

5. 25.(토) pm 5:00 / 소극장

안세권x리사의 필모그래피 **모닝**

6. 11.(화) am 11:00 / 소극장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6. 21.(금) ~ 23.(일) / 대극장

THE PIANIST **모닝**

7. 9.(화) am 11:00 / 소극장

로즈와일리 Hullo, again **전시**

1. 5.(금) ~ 3. 10.(일) / 전시실

3·15아트센터

가곡의 별들 대축제 **특별**

4. 19.(금) pm 7:30 / 대극장

기타리스트 장하은 콘서트 **수콘**

4. 24.(수) pm 7:30 / 대극장

디즈니 인 콘서트 **시즌**

5. 1.(수) pm 7:30 / 대극장

설x라쿠나 콘서트 **수콘**

6. 26.(수) pm 7:30 / 대극장

유니버설발레단

잠자는 숲속의 미녀 **시즌**

8. 16.(금) ~ 17.(토) pm 2:00 / 대극장

월드뮤직 콘서트 **수콘**

8. 28.(수) pm 7:30 / 대극장

진해문화센터

피아니스트 임동민 리사이틀

3. 14.(목) pm 7:30 /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넌버벌 퍼포먼스 웅알스

5. 2.(목) pm 7:30 / 진해문화센터 공연장

주현미 콘서트

5. 9.(목) pm 7:30 / 진해 야외공연장

구스타프 클림트 레플리카전 **전시**

1. 19.(금) ~ 4. 3.(수) / 진해 야외공연장 전시실

창원의 집

고택음악회

5. 11.(토) pm 7:30 / 다목적전각 특설무대

어린이 나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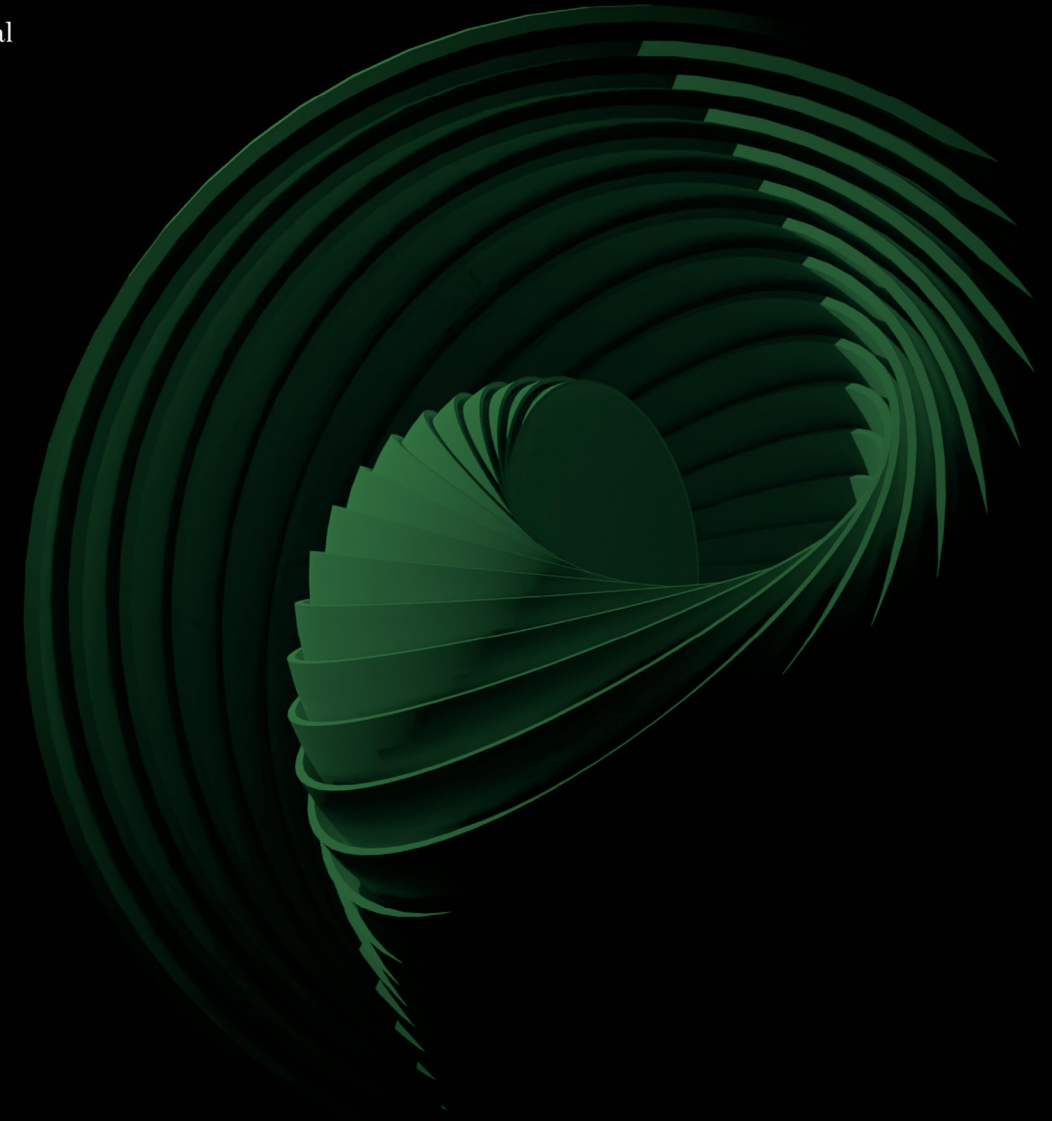
1. 16.(화) ~ 4. 21.(일) / 기획전시실

CHANGWON
CULTURAL
FOUNDATION

2024 LINE UP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24

TIMF



ETERNITY IN MOMENTS

Un Suk Chin, Artistic Director

Peter Eötvös, Composer in Residence
Antoine Tamestit, Artist in Residence
Bertrand Chamayou, Artist in Residence
Emmanuel Pahud, Artist in Residence

2024 통영국제음악제

March 29 ~ April 7, 2024

www.timf.org

- 회장사

BNK경남은행
- 부회장사

남명산업개발(주)
NH농협 경남본부
(주)무학
(주)씨티알
우수AMS(주)
(주)인산가
임경숙
(주)한국아나세
(주)화인테크놀리지
범한산업(주)
- 이사사

경상남도 문화체육국
경남오페라단
경원벤틱스(주)
고성오프대보존회
(주)대양산업가스
(주)리베라관광개발
산골농장(산청양계영농조합)
영광산업
신화철강(주)
원광건설(주)
창원대학교 음악과
청호환경산업(주)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화성G&(주)

-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가야BS(주)
가야오페라단
(주)거명인텍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경남개발공사
경남문화예술교육협동조합
경남스틸(주)
경남신문사
경남자동차판매(주)
경원여객자동차(주)
(주)경한코리아
(주)고려이노테크
(주)고려철강
고운가이드치과병원
고운선치과의원
고운치과병원
광득건설(주)
광신기계공업(주)
(주)구구
(주)국제전기
(주)국토보상원
그랜드머큐어엠베서더 창원
그린산업(주)
그림갤러리(주)
(주)금강종합건설
(주)금술개발
(주)금아하이드파워
(사)경남기독교문화원
(주)기산산업
김순태치과의원
(유)김해공영
김해상공회의소
낙우산업(주)
(주)남광디씨텍
남양매직(주)
늘푸른 요양병원
(주)다우링에너지
당당한방병원
(주)대경
대경건설(주)
(주)대길티에프
대방스페셜스틸(주)
대선주조(주)
(주)대송엔지니어링
대신금속(주)
(합)대신전기공업사
(주)대종이엔에프
- 대주회계법인 경남지사
(주)대호테크
더 스페이스 갤러리
the큰병원
(주)덕광중공업
(주)도원리사이클링
(주)동구기업
동성정공
(주)동은화학
동진해금(주)
두남화학
(주)두산중장비센터
디씨엘(주)
디케이이락(주)
라운산업개발(주)
마산정안과
(주)마창대교
명제한의원
몽고식품(주)
무림페이퍼(주)
문윤수치과의원
미르치과의원
미조종합건설(주)
미즈맘 여성병원
법무법인미래로
(주)만보건설
(재)봉림장학회
(주)부경
부곡스파디움
부산교통(주)
부성자동차학원
(주)부평디엔피
(주)복성산업
(주)사릭
(주)산호수출포장
삼우금속공업(주)
삼원동관(주)
(주)삼전건설
삼정기업
(주)삼정터빈
삼흥열처리
삼흥테크
상남굿모닝내과병원
상화도장개발(유)
(주)서영시스템
(주)성우
(주)성환금속
- (주)세복
세아창원특수강
(주)세양정공
(주)세중씨엔지
(주)세호
송죽전장
신광에이스전기(주)
신요푸드시스템(주)
신창기계(주)
(주)씨노텍
아나파약국
아진기계
(주)애드테크
(주)에스
(주)에스에이치아이
에이스브이
(주)에이스코트
에코시스템(주)
(주)엔지피
(주)영남엘피씨
(주)영신오토모티브
(주)영일정공
(주)영진테크
(주)영창기업
에인여성병원
(주)오곡산업
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옥산아이엘티
원광산업석재
(주)월템
유림건설(주)
윤한의원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의료법인성녕의료재단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주)이나인파워텍
이수디엔씨(주)
(주)이앤티
(주)이우
이피씨
인산죽염(주)
인화정공(주)
(주)잇편
JM성형외과
(주)장생도라지
(주)장성E.P.S
(주)정문애드테크
제일레스텍
- (주)좋은콘서트
중앙건설(주)
(주)중앙금속
(주)지엔티
진해성모병원
창원상공회의소
창원자동차운전전문학원
청아의료재단
최석주정신건강의학과의원
최익수의원
추고쿠삼화페인트(주)
캠코 경남지역본부
(주)케이조선
(주)코앞건설(참신한건설)
(주)코텍
티케이티태광(주)
태민산업(주)
태영엔지니어링
테라사이언스(주)
(주)포스텍
푸주옥
피케이밸브(주)
하이에어코리아(주)
한국남부발전하동빛드림본부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소니전자(주)
한국정기공업(주)
한국제강(주)
한국지역난방공사김해지사
한국태양유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주)한반도
(주)한창테크
하동 케이블카(주)
해성메탈(주)
현대공업(주)
(주)현대기업
현대로템
(주)해동
(주)호텔인터내셔널
흥기종합건설(주)
화영철강(주)
화이트치과
흥일기업(주)
STX엔진(주)

가입대상	연회비	가입절차
기업	200만원 이상	입회신청서 제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gnmecenat.or.kr
개인,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100만원 이상	

기업과 예술의 만남이 행복한 경남을 꽃피웁니다.
경남메세나협회는 정부에서 인증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입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Arts & Business

결연사업_기업과 예술단체의 1:1 결연을 통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예술단체 워크숍_도내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경영 및 회계실무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예술인의 기획 및 단체 운영 능력 향상을 돕습니다.

회원사 지원 사업 Membership Service

찾아가는 공연_기업 임직원과 고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를 직접 기획하여 제공합니다.
문화공간_예술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자 회원사에 우수문화행사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문화경영도서_문화예술을 기업 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문화경영도서를 선정하여 회원사에 전달합니다.
예술 동아리 지원_사내 문화예술 동아리 결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 기회를 늘리고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지정기탁_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업후원금을 지정 예술단체에 전달하고 기업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회원사 메세나 활동 홍보_회원사와의 협력사업을 메세나지,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합니다.

문화 나눔 사업 Sharing Art

행복한 나눔공연_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이웃의 문화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즐거운 나눔티켓_도내 어린이과 청소년에게 유익한 공연과 전시 관람 티켓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돕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합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Development

홍보지 '메세나지' 발간_협회 홍보지를 연2회 발간하여 경남메세나의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의 메세나 활동과 지역 문화예술 소식을 전합니다.
경남메세나포럼_회원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지역문화특화사업_지역의 고유한 문화예술콘텐츠를 지원하여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합니다.
찾아가는 메세나_경남의 18개 시·군을 찾아가 문화협력협약을 체결하고 예술영재 장학금 수여와 지역민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연구보고서 발간_경남의 기업 메세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합니다.

경남메세나대회 Gyeongnam Mecenat Awards

경남메세나대회_지난 1년간의 메세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인이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경남메세나상_경제와 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고마움을 담아 공로를 시상합니다.

문화예술 후원매개 사업 ART IS TREE

기업사랑메세나콘서트_경남메세나협회의 대중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신대양주식회사

ISO9001인증

신대양주식회사는
미래로의 도전을 계속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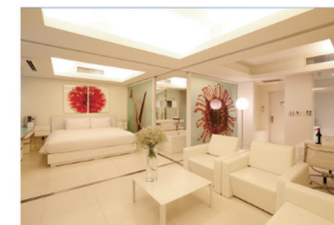
대표이사
박 중 춘

당사는 1985년 창립 이래 지역산업 발전의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1996년 남부지역 최초로 에틸렌(C_2H_4)을 제조, 2001년 ISO9001인증을 획득하여 지역 산업용 고압가스 제조 판매업체의 선두주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꾸준히 연구·노력하여 미래로의 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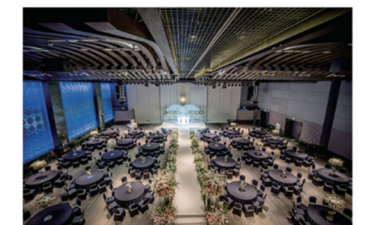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ACCOR 호텔 계열,
럭셔리 브랜드 최상위 '그랜드 머큐어'가 이 곳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으로 고객님의 다가섭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특급호텔로 최고급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책임지며, 창원의 명예를 지켜 가겠습니다.



RESIDENTIAL SUITE ROOM



GARDEN HOUSE



GRAND BALLROOM



GYM



BLUPIN RESTAURANT



LOBBY LOUNGE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32

대표/예약 055.600.0700 연회/웨딩 055.600.0800 블루핀 레스토랑 055.600.0803

도민과 함께하는 경남개발공사

경남도민을 위한 고품격·친환경 공간 창출
경남개발공사가 꿈과 희망을 설계합니다.

미션 우리는 도민이 행복한 경남발전을 선도한다

비전 경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가꾸는 GNDC

전략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지역과 고객에 큰 힘이 되는 상생금융에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지역엔+ 고객엔^α **BNK** 금융 그룹 **경남은행**

창원우체국

요금별납

사랑받는 기업, 행복한 사회 메세나가 함께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가치있는 나눔을 실천하며
예술이 세상과 만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줍니다.
메세나 기업의 나눔 덕분에 세상은 매일 조금씩 더 아름다워집니다.

경남메세나협회와 함께하시면



MECENAT
with you



- 문화예술행사 지원 및 문화경영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의
창조경영 및 문화경영 지원



- 도내 우수 공연 및 전시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초청



- 경남메세나지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경남메세나협회는 공익성 기부 대상단체입니다.
문화예술후원금 및 회비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드리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3F
Tel 055) 285-5611 Fax 055) 286-5610